

# 2024년 3/4분기 주력산업 모니터링 보고서

2024. 11.

조사국 지역경제부  
지역경제조사팀

본 자료는 각 산업의 대표 소재지를 관할하는 8개 지역본부에서 각종 행내외 통계자료, 업체 모니터링 결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자료로서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최근 동향 및 전망에 관한 분기별 모니터링 보고서입니다.

## 차 례

### <요 약>

### <산업별 모니터링 결과>

I . 반도체 (경기본부 진승민 과장, 박복연 조사역) .....	1
II . 자동차 (울산본부 신준식 과장, 안주현 조사역) .....	6
III . 석유화학 (광주전남본부 선진산 과장) .....	11
IV . 철강 (포항본부 권오익 과장) .....	15
V . 조선 (경남본부 정필문 과장, 황나윤 조사역) .....	19
VI . 디스플레이 (대전세종충남본부 정혜운 과장, 임연빈 조사역) ..	23
VII . 휴대폰 (대구경북본부 정유정 조사역) .....	27
VIII . 이차전지 (충북본부 안시완 조사역) .....	31

## <요약>

- ① 반도체는 2024년 3/4분기 중 수출이 IT 기기 수요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AI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반도체 수출은 4/4분기에도 양호한 성장이 이어지겠으나 범용 및 AI 반도체 간 차별적인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 ▶ 반도체 수출증가율(이하 전년동기대비):  $24.2/4 +53.5\% \rightarrow 3/4 +41.4\%$
  - 향후 성장경로는 중국 경기의 회복 속도, 미국 차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 AI 디바이스 확산 정도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 ② 자동차는 3/4분기 중 생산(대수기준)이 시설보수 및 파업으로 공장 가동률이 하락한 가운데 유럽 등 주요국 수요도 둔화되면서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4/4분기에는 파업 영향 축소, 신차 출시 등으로 감소세가 완화될 전망이다.
- ▶ 자동차 생산증가율:  $24.2/4 -1.1\% \rightarrow 3/4 -7.1\%$
  -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수출의 하방 리스크 요인이다.
- ③ 석유화학은 3/4분기 중 생산과 수출(+7.9%)이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에도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 같은 증가세는 4/4분기에도 이어지겠으나 글로벌 수요 회복이 지연되면서 증가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석유화학 생산증가율(생산지수):  $24.2/4 +3.3\% \rightarrow 3/4 +3.6\%$
  -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은 기존 품목의 공급과잉 및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고부가가치·친환경 제품으로의 사업구조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재편에는 대규모 투자지출이 소요됨에 따라 향후 기업별로 사업전환 성과 및 속도가 차별화 될 전망이다.
- ④ 철강은 3/4분기 중 생산이 전방산업 수요 부진, 중국산 저가 철강재 수입 증가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했으며, 4/4분기에도 국내 건설투자 부진, 중국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에 따른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 철강 생산증가율(생산지수):  $24.2/4 -8.4\% \rightarrow 3/4 -4.1\%$
  - 철강 산업 업황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여부, 주요국 금리 인하에 따른 소비 및 투자의 개선 정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한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⑤ 조선은 3/4분기 중 생산(+21.8%)이 큰 폭 증가하였으나, 신규 수주는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로 감소하였다. 향후 조선 업황은 노후 선박 교체 수요,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신규 발주가 늘어나면서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조선 신규 수주 증가율: 24.2/4 +35.8% → 3/4 -16.5%

- 중국 조선사의 생산시설 증설 및 저가 수주로 인한 경쟁 심화와 숙련 근로자 부족 문제가 중기적으로 리스크 요인이다.

⑥ 디스플레이는 3/4분기 중 생산이 IT 기기의 OLED 탑재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LCD 패널 부진으로 감소 전환하였다. 향후 디스플레이 산업 업황은 LCD 부문 구조조정, 글로벌 가격 및 점유율 경쟁 심화 등으로 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 디스플레이 생산증가율(생산지수): 24.2/4 +10.1% → 3/4 -0.8%

- 설비투자의 경우 국내외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기업들이 IT 기기용 OLED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공격적인 장비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⑦ 휴대폰은 3/4분기 중 수출이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제품 및 부품 모두 크게 증가 하였으며, 향후에도 AI 탑재 휴대폰 및 고성능 부품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휴대폰 수출증가율: 24.2/4 +12.0% → 3/4 +47.7% (완제품 +19.7%, 부품 +55.4%)

- 삼성전자의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아이폰16 대기수요, 내수시장 판매 부진 등으로 소폭 감소(-0.3%) 하였으며, 향후에도 경쟁업체의 신제품 출시에 따른 경쟁 심화 등으로 보합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⑧ 이차전자는 3/4분기 중 수출이 전기차용 수출(-71.1%) 부진은 확대되었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ESS(에너지 저장장치)용 수출(+70.8%)이 크게 늘어나면서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이차전지 수출은 4/4분기에도 전방산업 연말 재고조정 등으로 감소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 이차전지 수출증가율: 24.2/4 -29.4% → 3/4 -9.3%

- 이차전지 산업의 업황은 내년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차기 행정부가 친환경 관련 정책을 폐지 또는 축소할 것으로 보여 업황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 <산업별 모니터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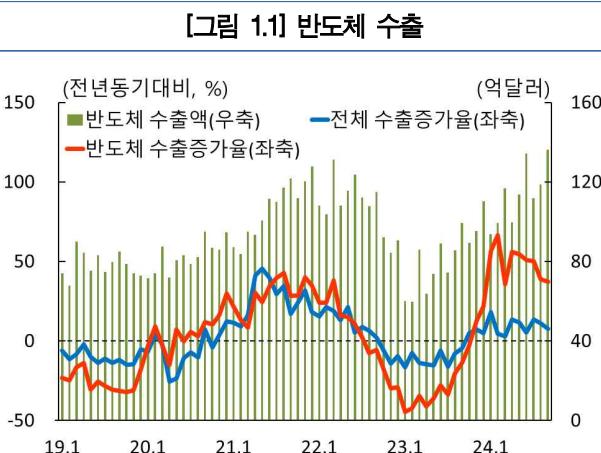
### I 반도체 [경기본부 진승민 과장, 박복연 조사역]

- 2024년 3/4분기 중 반도체 수출은 IT 전방수요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AI 반도체 경기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41.4% 증가하였다.
- 2024년 4/4분기 중 반도체 수출은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소비자용 IT기기 수요 회복 지연, 범용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 등 하방리스크도 상존한다. 향후 반도체 산업 성장경로는 중국 경기회복 속도, 미국 차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 AI 디바이스 확산 등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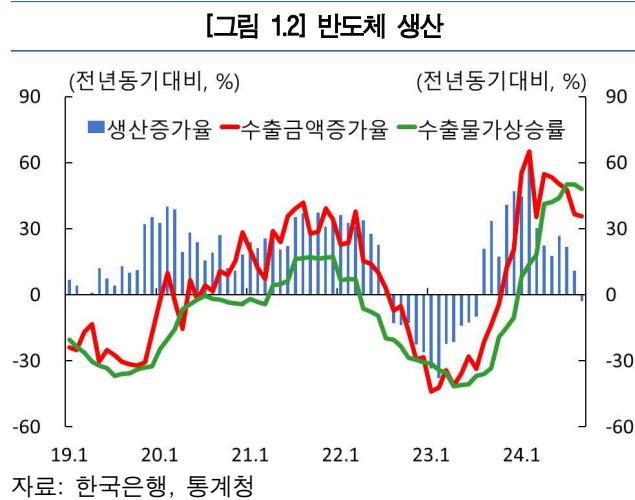
1. 2024년 3/4분기 중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1.4% 증가하면서 증가세(전분기 +53.5%)가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PC·스마트폰 등 IT기기 전반에 걸친 수요 회복은 당초 예상보다 지연<sup>1)</sup>되고 있으나, AI 관련 반도체 경기호조, 수출단가 상승<sup>2)</sup>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메모리반도체 +71.9%, 시스템반도체 +6.5%) 10월 중 수출(잠정)도 전년동월대비 40.3% 증가하는 등 전분기와 유사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한편 3/4분기 중 반도체 생산은 범용 반도체의 더딘 수요 회복 등으로 증가세(+8.8%)가 전분기(+22.3%) 대비 상당폭 축소되었다.

#### 반도체 수출 증가세는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양호한 흐름 지속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반도체 생산 증가세는 상당폭 축소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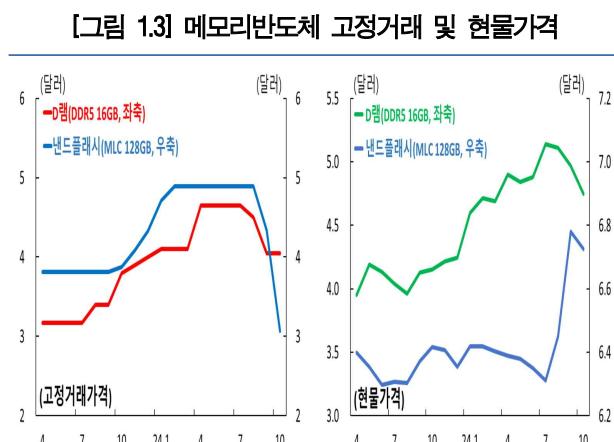
1) 2024.3/4분기 중 메모리반도체 수출물량은 전분기대비 10.7% 감소(전년동기대비 -21.0%)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2) 2024.3/4분기 중 반도체 수출물가지수(계약가격기준)는 전분기대비 3.3% 상승(전년동기대비 +49.5%)하였다.

**2. 3/4분기 중 메모리반도체(D램 및 낸드플래시) 고정거래가격<sup>3)</sup>은 D램 및 낸드플래시 모두 전분기말대비 하락하였다.** 이는 중국 내수부진, 상반기 중 PC 제조업체들의 재고축적(restocking), AI PC 출시 기대에 따른 PC 구매 지연<sup>4)</sup> 등의 영향으로 PC·모바일용 범용 반도체의 수요 회복이 지연된 데다, 특히 낸드플래시의 경우 업체들 간의 일시적 공급 경쟁<sup>5)</sup> 등에 따른 현물가격 하락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 데 기인한다. 한편 3/4분기 중 D램 현물가격<sup>6)</sup>은 소비자용 IT기기 수요 위축으로 하락 전환되었으나, 낸드플래시는 업체들 간 공급경쟁이 완화되면서 큰 폭 상승했다.

**3. 동 기간 중 국내 반도체 대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출액(전년동기대비 각각 +78.0%, +93.8%) 및 영업이익(+202.9%, +492.3%)은 AI 서버용 제품(HBM, eSSD<sup>7)</sup> 등) 수요 강세 지속으로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 범용 메모리반도체 수요 회복 지연, 비용 증가<sup>8)</sup>, 파운드리 실적 부진 등에 영향받아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축소되었다.

#### 메모리반도체 고정거래가격 일제히 하락



자료: DRAMeXchange

#### 국내 반도체 대기업 실적 호조

[표 1.1] 주요 반도체 기업 실적<sup>1)</sup>

분류 <sup>2)</sup>	2023 4/4	2024			(조원, %)
		1/4	2/4	3/4	
삼성전자 <sup>2)</sup>	매출액	21.7	23.1	28.6	29.3 (78.0)
	영업이익	-2.7	1.9	6.5	3.9 (202.9)
	영업이익률	-10.1	8.3	22.7	13.2
SK하이닉스	매출액	11.3	12.4	16.4	17.6 (93.8)
	영업이익	0.3	2.9	5.5	7.0 (492.3)
	영업이익률	3.1	23.2	33.3	40.0

주: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반도체 부문 기준  
자료: 각사 홈페이지

3) D램(DDR5 16GB) 및 낸드플래시(MLC 128GB) 고정거래가격(\$) :

	23.12월 말	24.3월 말	6월 말	7월 말	8월 말	9월 말	10월 말
D램	3.90	3.90	4.65	4.65	4.50	4.05	4.05
낸드플래시	4.10	4.90	4.90	4.90	4.90	4.34	3.07

- 4)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AI PC 출시를 기다리며 PC 구매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I PC는 단순히 전용 가속기 반도체를 장착한 PC가 아니라 클라우드 접속 없이 자체적으로 Copilot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구동할 수 있는(온디바이스) PC를 의미한다. 온디바이스 AI PC는 최소 40 TOPS(Trillion operations per second) 이상(Copilot 기준)의 컴퓨팅파워가 필요한데, 특히 노트북의 경우 현재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신형 모델을 기다리는 구매 대기가 발생하고 있다.  
 5) 2/4분기 중 일본 키옥시아(KIOXIA)의 재고 소진을 위한 밀어내기 물량 확대에 대응하여 업체들 간 공급경쟁이 확대되면서 낸드플래시 현물가격이 하락하였다.

6) D램(DDR5 16GB) 및 낸드플래시(MLC 128GB) 현물가격(\$) :

	23.12월 말	24.3월 말	6월 말	7월 말	8월 말	9월 말	10월 말
D램	4.25	4.69	4.88	5.14	5.11	4.97	4.75
낸드플래시	6.35	6.40	6.35	6.31	6.45	6.78	6.73

7) 16TB 이상의 트리플레벨셀(TLC)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4TB, 8TB 제품에 대한 주문도 증가하고 있다.(Trendforce)

8) 재고 평가손실 환입 규모가 축소된 데다, 직원 성과급 총당금 등 일회성 비용이 증가하였다.(삼성전자 실적보고서)

## 향후 전망

4. 2024년 4/4분기 중 반도체 수출은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PC·모바일 등 IT 전방수요 회복 속도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생산도 수요가 많은 고성능 제품(HBM, QLC SSD<sup>9</sup>) 등) 생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5. 메모리반도체는 AI 서버투자 수요, 신형 AI 칩 출시, 고부가 제품군 출하 비중 확대<sup>10)11)</sup>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지겠으나, 중국 내수부진에 따른 소비자용 IT 기기 수요 회복 지연, 범용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 등 하방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서버투자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4/4분기 중 출시되는 신형 AI 칩에 국내 기업의 고대역폭 메모리반도체(12단 HBM3E)가 탑재<sup>12)</sup>되면서 AI 반도체 수출 증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내수부진에 따른 PC·스마트폰의 더딘 수요 회복<sup>13)14)</sup>, 최근의 D램 현물가격 하락세가 PC·모바일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확대<sup>15)</sup>될 가능성 등은 업황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메모리반도체 초과수요 지속

[그림 1.4] 메모리반도체 수급 전망



주: 1) 점선은 전망치  
자료: Gartner(24.9월)

일부 D램 가격은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하락 전환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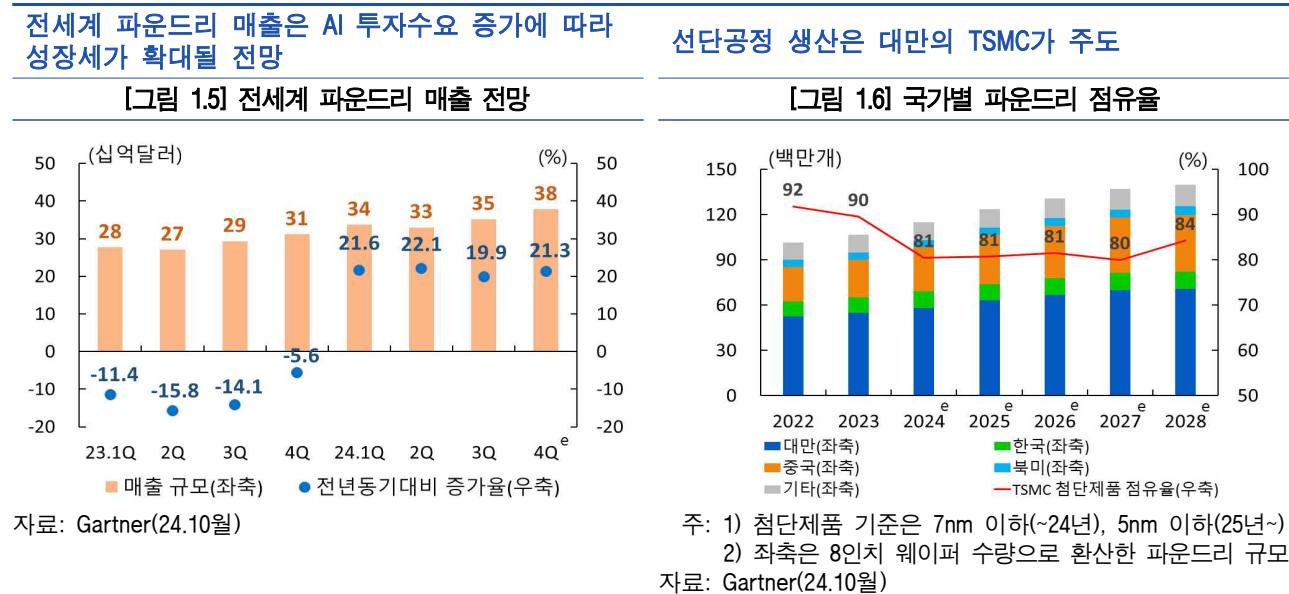
[표 1.2] 주요 D램 가격 등락률<sup>16)</sup> 전망

분류		'24.3/4분기	'24.4/4분기 <sup>16)</sup>
PC용	DDR4	+8~13%	보합
	DDR5	+8~13%	보합
서버용	DDR4	+8~13%	보합
	DDR5	+13~18%	+3~8%
모바일용	LPDDR4X	보합	-5~10%
	LPDDR5X	보합	보합
전체		+8~13%	+0~5%
(HBM 포함시)		+10~15%	+8~13%

주: 1) 전분기 대비  
자료: Trendforce

- 9) QLC란 낸드플래시의 기본 저장 단위인 셀(cell) 하나에 4비트(bit)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셀 하나에 4비트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만큼 저장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고 칩 크기도 줄일 수 있다. 비용 측면에서 스토리지 용량 증설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AI 데이터센터에서 QLC 낸드플래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10) ASP(평균판매단가)는 DDR5가 올해 서버 D램 비트 출하량의 40%를 차지하면서 53% 상승하고, 내년에는 DDR5 비중이 50~60%까지 확대되면서 3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D램 매출은 75%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낸드플래시 매출은 고성능 QLC 비중이 확대되면서 7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Trendforce)
- 11) SK하이닉스의 3/4분기 D램 매출 중 HBM의 비중은 30%에 달하고 낸드플래시 매출 중 eSSD의 비중은 60%를 넘어섰으며, 4/4분기에도 AI 관련 고성능 메모리반도체의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SK하이닉스)
- 12) 10.11일 출시된 AMD의 신규 AI 칩(MI325X)에 삼성전자의 12단(288GB) HBM3E가 독점적으로 탑재되며, 이에 삼성전자는 12단 HBM3E를 4/4분기 중 양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SK하이닉스는 4/4분기 중 출하가 예상되는 엔비디아 블랙웰에 탑재될 12단 HBM3E 양산을 시작했고 연내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9.26일)
- 13) 최근 일반서버 및 저가 스마트폰의 수요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고가 스마트폰 및 PC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구매가 지연되면서 내년 AI 폰 출시 및 윈도우10 서비스 종료 시기에 이르러서야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14) 10.15일 실적발표에서 어닝쇼크를 기록한 ASML(반도체 장비 시장 점유율 약 20%)이 내년 매출도 시장 전망치 대비 부정적으로 전망하면서 범용 반도체 시장 침체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 15) 낸드플래시의 경우 고객용(cSSD)은 수요 약화 및 공급 증가에 따라 5~10% 하락, 기업용(eSSD)은 0~5%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Trendforce)

**6. 파운드리는 글로벌 매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생산 주문이 일부 업체에 집중<sup>16)</sup>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성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파운드리 매출 성장세는 선단공정(7nm 이하) 시장이 견인<sup>17)</sup>하고 있는데, 대만 TSMC가 선단공정 생산을 주도<sup>18)</sup>하면서 글로벌 매출 성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인텔과 파운드리 부문의 협업 방안<sup>19)</sup>을 추진하는 등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7. 향후 반도체 산업 성장경로는 중국 경기회복 속도, 미국 차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 AI 디바이스 확산 등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범용 반도체 업황은 우리나라의 범용 반도체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기부양 효과에 크게 영향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차기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산업 및 관세 관련 정책 불확실성<sup>20)</sup>이 상존하는 가운데, 첨단기술 패권 확보를 위한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 정책<sup>21)</sup>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반도체 경기에 대한 시장 경계감 증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인 온디바이스 AI<sup>22)</sup> 보급이 확산될수록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 16) TSMC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블랙웰뿐만 아니라 애플, 퀄컴, 미디어텍 등 고성능 칩을 일괄 수주하고 있다. 주력인 3nm와 5nm, 첨단 패키지 공정 설비가 100% 가동되고 있음에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 17) 2024년 파운드리 글로벌 매출 중 선단공정(7nm 이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8%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선단 공정의 2023년 대비 매출증가율은 29%로 전체 매출 증가액의 4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18) TSMC의 2024년 중 첨단제품(7nm 이하) 시장 점유율은 약 81%로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 19) 업계에서는 협업이 성사될 경우 공정기술 교류, 생산설비 공유, R&D 협업 등에서 포괄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20)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보편적 관세 10%, 對중국 관세 60% 등 대규모 관세 부과를 계획하고 있으며, 공화당 밴스 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공개적으로 표명(7.16일) 한 바 있다.
- 21) 최근 미 재무부(10.28일)는 미국 자본이 중국, 홍콩, 마카오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술 및 제품(반도체, AI, 양자컴퓨팅 등)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 최종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전세계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22) MS는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한 코파일럿 플러스 PC(Copilot+ PC)를 공개하였으나 시장 침투율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애플은 지난 9월 클라우드를 통해 제한된 AI 기능을 적용하는 아이폰16을 출시하였으며, 내년 중 본격적인 온디바이스 AI 폰인 아이폰17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박상욱(2024), “INDUSTRY REPORT 반도체 산업”, 신영증권

산업통상자원부(2024), “2024.7~9월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2024), “2024.7~9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삼성전자(2024),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자료”

송명섭(2024), “월간 반도체”, iM증권

정민규(2024), “2025년 산업전망 : 관성에서 벗어나라”, 상상인증권

한국무역협회(2024),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한국반도체산업협회(2024), “KSIA ISSUE REPORT”

황민성, 류형근, 장민승(2024), “또 한 번의 불황에 대한 경고”, 삼성증권

Joseph Unsworth(2024), “Forecast: NAND Flash Market Statistics, Supply and Demand, Worldwide”, Gartner

Shrish Pant(2024), “Forecast: DRAM Market Statistics, Supply and Demand, Worldwide”, Gartner

SK하이닉스(2024),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자료”

Thomas Chiang, Yashika Goyal, Rachel Chippendale(2024), “Forecast: Semiconductor Foundry Revenue, Supply and Demand, Worldwide”, Gartner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24), “Treasury Issues Regulations to Implement Executive Order Addressing U.S. Investments in Certain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Countries of Concern”, Press release, October 2024

## II 자동차 [울산본부 신준식 과장, 안주현 조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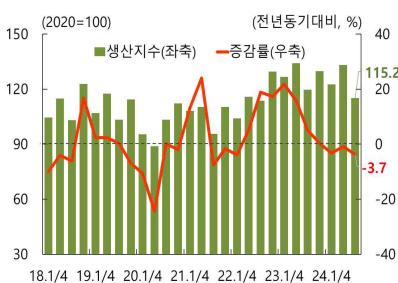
- 2024년 3/4분기 중 자동차산업은 내수(-2.3%, 전년동기대비)가 신차 출시, 견조한 친환경차 수요 등으로 감소세가 완화되었으나, 수출(-5.1%)은 주요국 수요 둔화, 파업 등으로 인한 생산 차질 등으로 감소 전환하였다.
- 2024년 4/4분기 중에는 내수가 가계 실질소득 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며, 수출은 지난해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일부 생산 차질 지속 등으로 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또한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출의 하방 리스크는 커진 상황이다.

### 최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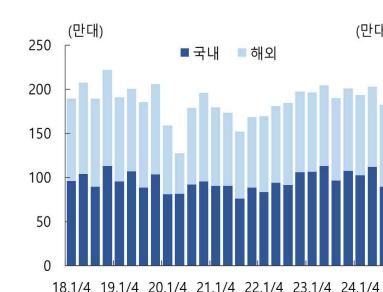
1. 2024년 3/4분기 중 국내 자동차 생산(대수)은 완성차·부품업체의 시설보수 및 파업<sup>23)</sup>, 수출 둔화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7.1% 감소<sup>24)</sup>하였다. 자동차산업 생산지수(115.2)는 주요 자동차업체들의 시설공사 및 파업 등으로 가동률이 장기평균(2014~2023년)을 큰 폭 하락한 데다, 수출이 2022년 1/4분기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면서 전년동기대비 3.7% 감소하였다. 한편 해외 자동차 생산<sup>25)</sup>(대수)은 중국<sup>26)</sup>(-10.5%)의 부진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0.6% 감소하였다.

#### 자동차 생산지수 3분기 연속 감소 국내외 자동차 생산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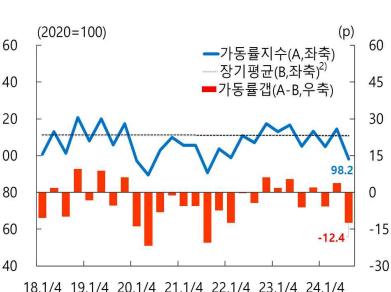
#### 가동률지수 장기평균 큰 폭 하락

[그림 2.1] 자동차산업 생산지수<sup>1)</sup>

주: 1) 자동차부품 포함  
자료: 통계청

[그림 2.2] 자동차 생산대수<sup>1)</sup>

주: 1) 해외생산은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50% 이상이거나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그림 2.3] 자동차산업 가동률지수<sup>1)</sup>

주: 1) 자동차부품 포함  
2) 최근 10년 평균  
(2014.1/4분기~2023.4/4분기)  
자료: 통계청

23) 2024년 3/4분기 중 기아 화성공장(24.7~8월), 한국GM 부평공장(24.7월)에서 시설공사가 진행되었고, 한국GM(24.7월), 르노코리아(24.9~10월) 및 현대차·기아 부품업체(모트라스 등, 24.7월)의 임금·단체협약 진행과정에서 부분파업이 발생하며 자동차 생산이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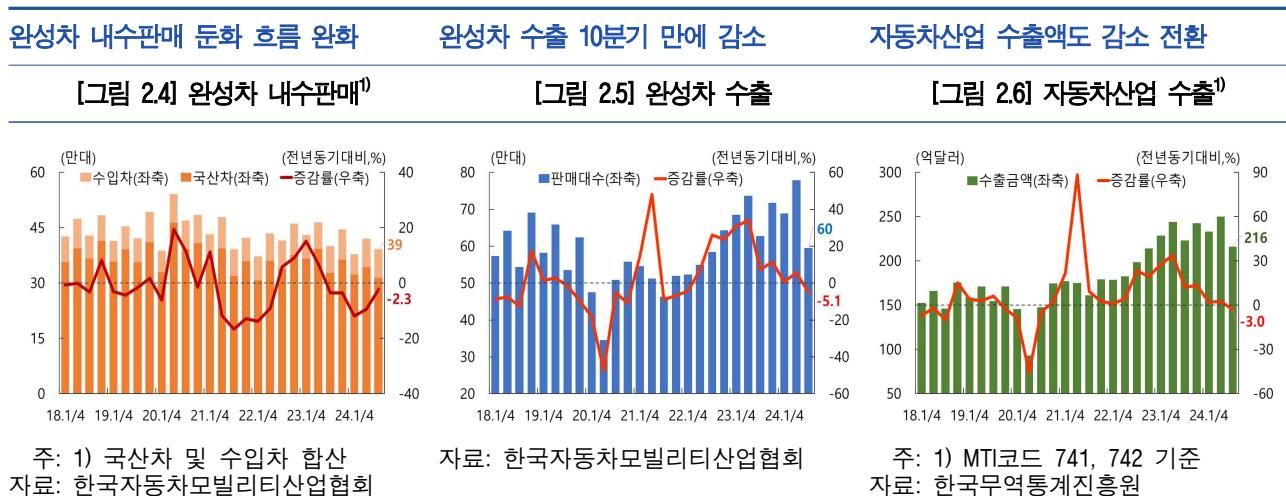
24) 차종별로는 승용차 생산이 6.0% 감소하였고, 상용차 생산은 20.1% 감소하였다.

25) 해외 자동차 생산 국가별 비중(%), 24.9월 말: 인도 30.4, 미국 19.8, 중국 11.0, 슬로바키아 8.7, 체코 8.4 등 <해외생산 50.8>

26)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등 소비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중국 브랜드 및 테슬라의 점유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현대차·기아의 중국 자동차시장 점유율은 2024년 9월 기준 각각 0.7%, 0.6%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2. 자동차 내수판매(대수)는 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우려<sup>27)</sup>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3% 감소<sup>28)</sup>하였으나 신차 출시효과<sup>29)</sup>, 견조한 친환경차(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수요 등으로 감소폭은 축소<sup>30)</sup>되었다. 고금리에 따라 수요가 저조한 가운데 전기차 화재 등으로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신차효과(캐스퍼EV·EV3·그랑콜레오스 HEV) 및 친환경차(+26.9%) 판매 호조 등으로 내수판매 감소세는 다소 완화되었다.**

**3. 자동차 수출은 생산 차질이 발생한 데다 유럽 등 주요국 수요도 둔화되면서 대수<sup>31)</sup>(-5.1%) 및 금액<sup>32)</sup>(-3.0%)이 모두 감소 전환하였다.** 지역별로는 북미(판매대수 +0.9%, 수출액 +3.9%)가 친환경차 및 SUV 판매 호조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유럽(판매대수 -18.1%, 수출액 -22.5%)은 독일·프랑스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더딘 모습을 보이며 신차 판매 둔화 흐름<sup>33)</sup>이 지속되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4.6%)와 상용차(-17.8%) 수출이 모두 감소하였다. 다만 친환경차(-0.9%) 수출은 전기차(-35.4%) 수출이 수요 둔화 영향으로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하이브리드차(+72.0%) 수출이 큰 폭 증가하며 감소폭을 축소하였다.



27)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24.8.1일)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며 전기차 수요가 수입차를 중심으로 2024년 8월 이후 크게 둔화되었다.

- 전기차(BEV) 판매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국산> 24.7월 -4.1 → 8월 +83.8 → 9월 +54.3  
<수입> 24.7월 +120.8 → 8월 +40.6 → 9월 -17.6

28) 국산차 판매(비중 80.5%)는 4.0% 감소하였으나 수입차 판매(비중 19.5%)는 5.3% 증가하였다.

29) 2024년 3/4분기 중 현대차(캐스퍼EV), 기아(EV3), KG모빌리티(액티언), 르노코리아(그랑콜레오스) 등 주요 완성차업체들의 신차 판매가 이어졌다.

30) 자동차 내수판매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2024년 1/4분기 -11.9 → 2/4분기 -9.5 → 3/4분기 -2.3 <24.1~9월중 -8.1>

31) 자동차 수출대수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2024년 1/4분기 +0.6 → 2/4분기 +5.7 → 3/4분기 -5.1 <24.1~9월중 +0.7>

32) 자동차 수출액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2024년 1/4분기 +1.9 → 2/4분기 +2.5 → 3/4분기 -3.0 <24.1~9월중 +0.5>

33) EU 신차등록대수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2024년 7월 +0.2(독일 -2.1, 프랑스 -2.3) → 8월 -18.3(독일 -27.8, 프랑스 -24.3) → 9월 -6.1(독일 -7.0, 프랑스 -11.1)

### <참고> 2024년 3/4분기 중 국내 친환경차\* 생산 및 판매동향

\* 전기차(BEV, PHEV, FCEV 포함#) 및 하이브리드차(HEV)로 구분

# Battery Electric Vehicle(순수 전기차), Plug-in Hybrid EV(높은 배터리 용량의 HEV), Fuel Cell EV(수소연료전지차)

- (생산) 전기차 생산\*(대수)은 전년동기대비 21.0% 감소하였으며, 하이브리드차 생산\*(대수)은 전년동기대비 37.2% 증가

\* 친환경차 생산 비중<31.8%>: 전기차 10.6%, 하이브리드차 21.2% [내연기관 68.2%]

- (내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내수판매\*(대수)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31.0%, 35.8% 증가

\* 친환경차 내수판매 비중<41.3%>: 전기차 11.9%, 하이브리드차 29.4% [내연기관 58.7%]

- (수출) 전기차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5.4% 감소하였으며, 하이브리드차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72.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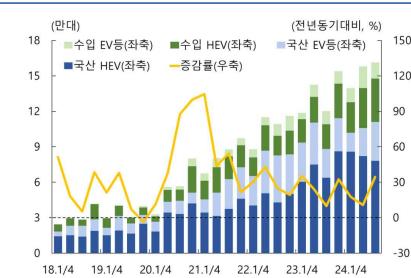
\* 친환경차 수출액 비중<25.4%>: 전기차 11.2%, 하이브리드차 14.2% [내연기관 74.6%]

[참고 2.1] 친환경차 생산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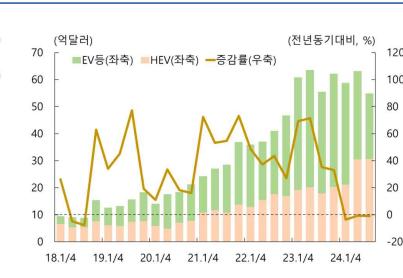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참고 2.2] 친환경차 내수판매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참고 2.3] 친환경차 수출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향후 전망

4. 2024년 4/4분기 중 국내 자동차 생산은 파업 영향 축소, 신차 출시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완화<sup>34)</sup>될 것으로 예상된다. 3/4분기 중 주요 업체들의 단체협약이 마무리되며 자동차 생산이 대체로 정상화되고, 연말을 앞두고 주요 완성차업체들의 신차 판매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업에 따른 영향이 일부 이어지고 있어 개선폭은 제한될 전망이다.

5. 내수는 가계 실질소득 개선,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견조한 수요<sup>35)</sup> 등으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 상승세 확대<sup>36)</sup>, 디스인플레이션 진전에 따른 소비여력 개선 등으로 내수판매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또한 하이브리드차

34) 해외 자동차 생산은 현대차그룹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공장(HMGMA)이 2024년 11월부터 본격 가동됨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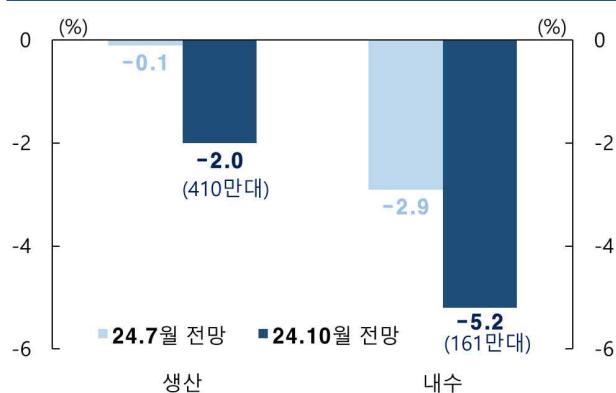
35) 국내 하이브리드차 신규등록대수(만대): 2022년 26.2 → 2023년 37.1 → 2024년 1~9월 33.6(전년동기대비 +30.9%)

36)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 전년동기대비): 2024년 6월 +3.3 → 7월 +7.4 → 8월 +3.4

를 중심으로 신차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차 수요도 정부의 전기차 안전관리 대책 도입<sup>37)</sup>, 완성차업체들의 가격할인 확대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6. 수출은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다소 회복되겠으나, 지난해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일부 생산 차질 지속 등으로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미(비중 61.3%)는 친환경차·SUV 수요가 지속<sup>38)</sup>되고, 유럽(비중 18.1%)은 전기차 지원책 시행<sup>39)</sup> 등으로 친환경차 수요 둔화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수출의 경우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중저가 전기차 출시<sup>40)</sup> 및 주요국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sup>41)</sup>에 따른 반사이익 등으로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난해 4/4분기 수출이 역대 동분기 최고 수준<sup>42)</sup>을 기록하여 기저효과가 있는 데다가,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일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보합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또한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sup>43)</sup>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출의 하방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다.

#### 연간 자동차 생산 및 내수판매 전망 하향

[그림 2.7] 2024년 국내 자동차 생산·내수판매 전망<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S&P Global Mobility

#### 미 자동차 수입규제 조치 강화 가능성

[표 2.1] 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보호무역조치 공약

##### 주요 내용

- 10~20%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 60% 대중관세 등을 통한 무역적자 해소
- 미국외 생산 자동차 100% 관세, 멕시코산 중국 자동차 100~200% 관세 등을 통한 자국 일자리 보호
- 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의무판매 규제 완화 등 친환경 관련 지원·규제 축소

자료: 한국무역협회, 언론사 등

37) 국토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2024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차 안전성 확보,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화재 대응능력 강화 등을 포함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24.9.6일)」을 발표한 바 있다.

38)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주요 경쟁사 대비 낮은 가격 및 옵션 경쟁력, 북미시장 HEV/EV 침투율 확대 지속 등으로 가격민감도가 높은 소비자군을 중심으로 양호한 판매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39) 2023년 말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던 독일 정부는 기업용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 지급,里斯차량에 대한 전기차 구매 의무비율 적용 등의 정책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4년 10월 EU 내에서 전기차 정책에 관여하는 위원회 세 곳 모두 탄소감축 및 전기차 확대에 적극적인 위원들로 신임 집행부가 구성됨에 따라 향후 유럽에서 전기차 확대에 우호적인 정책들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40) 주요 완성차업체들은 연말까지 미국(EV6 페이스리프트), 유럽(캐스퍼EV, EV3, EV6 페이스리프트) 등에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중저가 모델의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41) 지난 10.4일 EU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은 현행 10%에서 17.8~45.3%(조사 협조도 등에 따라 업체별 차등적용, 10.31일 발효)로 인상되었다. 한편 미국(25% → 100%, 9.27일 발효), 캐나다(0% → 100%, 10.1일 발효)도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여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을 인상한 바 있다.

42) 2023년 4/4분기 자동차 수출금액(242.6억달러)은 역대 4/4분기 수출금액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43)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보 공약으로 10~20% 보편관세, 60% 대중관세 등 1기 집권시보다 강력한 관세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 참고문헌

기아(2024), “기아 2024년 3분기 경영실적”

미래에셋증권(2024), “자동차: 7~9월 글로벌 판매”

산업연구원(2024), “미 대선에 따른 한국 자동차산업의 영향”

한국무역협회(2024),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4), “자동차등록통계월보(2024.9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4), “자동차통계월보(2024.9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4), “2024년 자동차산업 7~9월 동향”

현대자동차(2024), “현대자동차 2024년 3분기 경영실적”

S&P Global Mobility(2024), “Global Sales and Production Commentary”, October 2024

### III 석유화학 [광주전남본부 선진산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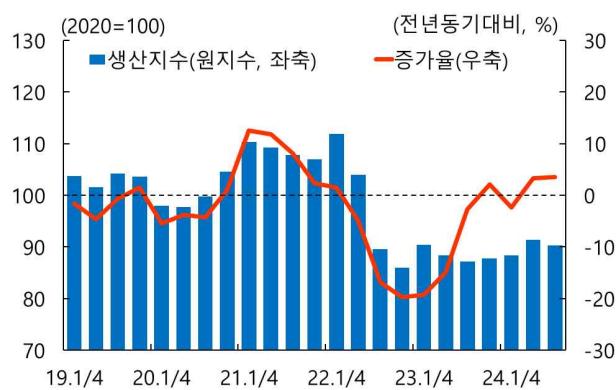
- 2024년 3/4분기 중 석유화학산업 생산은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늘어난 모습이다. 4/4분기 중 생산과 수출은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개선 지연 등으로 회복이 더딜 전망이다.
- 국내 석유화업체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부가가치·친환경 제품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추진 중이나,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동향

1. 2024년 3/4분기 중 국내 석유화학산업 생산은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하였다. 하지만, 석유화제품 공급과잉<sup>44)</sup> 지속에 따른 단가 상승 제한, 해상운임 비용 증가<sup>45)</sup> 등으로 국내 주요 업체의 3/4분기 수익성은 부진<sup>46)</sup>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나프타 기반 생산설비의 원가경쟁력 열위<sup>47)</sup>, 국내 석유화제품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자급률 상승<sup>48)</sup> 등 부정적 여건이 지속되고 있어 생산이 구조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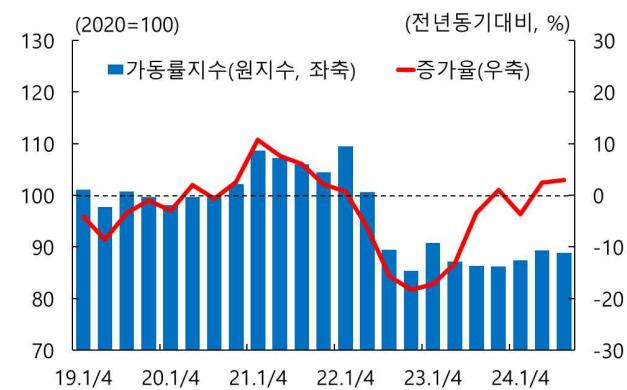
#### 석유화학 생산은 증가하고 가동률은 상승

[그림 3.1] 석유화학 생산지수



자료: 통계청

[그림 3.2] 석유화학 가동률지수



자료: 통계청

44) 전세계 에틸렌 생산설비는 2020~2023년 중 43백만톤 증가(19년 대비 +23.5%)하였으며, 이는 국내 에틸렌 생산능력(13백만 톤, 23년 기준)의 3.3배 규모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중 전세계 에틸렌 수요는 17백만톤 증가(19년 대비 +10.6%)에 그쳤다.

45) 2024년 3/4분기 중 해상운임(전기비 증가율, 24.1/4분기 +96.0% → 2/4분기 +23.5% → 3/4분기 +52.5%, 한국해양진흥공사 컨테이너선 종합운임 기준)이 상승하면서 수출 비용이 큰 폭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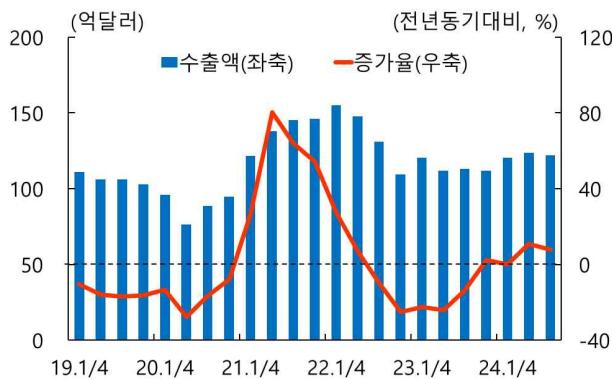
46) 국내 주요 석유화학 업체는 24.3/4분기 중 영업이익 적자(롯데케미칼 기초화학부문 -3,650억원, LG화학 석유화학 부문 -382억원,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 -310억원, SKC 화학부문 -157억원 등)를 기록하였다.

47) 나프타를 주 원료로 사용(NCC)하는 국내 업체의 에틸렌 생산원가는 평균적으로 톤당 805달러 수준이나, 에탄가스를 주원료로 사용(ECC)하는 미국과 중동 업체의 에틸렌 생산원가는 톤당 265달러 수준이다.

48) 중국은 2020년부터 석유화학 생산설비를 본격적으로 증설해 2022년 중 생산능력 1위 국가(에틸렌 기준 생산능력, 20년 32백만톤 → 21년 40백만톤 → 22년 46백만톤 → 23년 52백만톤)로 부상하였다. 또한 중국의 석유화제품 자급률이 2025년 10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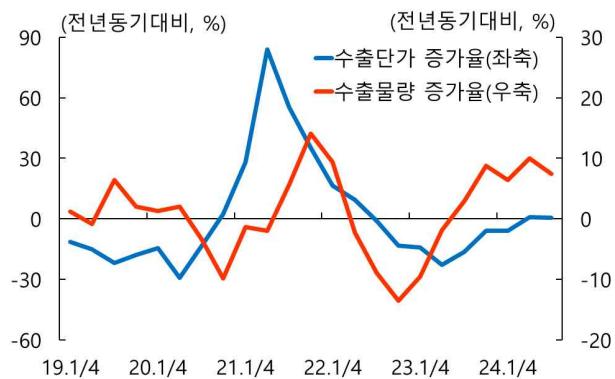
2. 3/4분기 중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7.9%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출물량이 증가(+7.5%)하고 수출단가도 소폭 상승(+0.4%)한 모습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유럽 등에서, 제품별로는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포함한 대부분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하였다.<sup>49)</sup>

#### 석유화학제품 수출 증가

[그림 3.3] 석유화학제품 수출<sup>1)</sup>

주: 1) 통관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석유화학제품 수출물량은 증가, 수출단가는 소폭 상승

[그림 3.4] 석유화학제품 수출 단가<sup>1)</sup> 및 물량

주: 1) (수출액)/(수출물량)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아시아, 유럽지역 등에서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증가

[표 3.1] 지역별 석유화학제품 수출<sup>1)2)</sup>

	2023년		2024.2/4		2024.3/4		2024.10월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100.0]	457.0	(-15.9)	123.9	(10.8)	121.9	(7.9)	39.9	(10.2)
아시아	[66.1]	302.0	(-17.2)	77.7	(10.3)	84.7	(9.6)	28.9	(14.6)
(중국)	[37.3]	170.5	(-17.6)	40.0	(-2.2)	47.4	(10.0)	17.3	(29.0)
(동남아)	[16.9]	77.3	(-22.2)	22.9	(31.2)	22.3	(11.5)	7.1	(-2.8)
유럽	[16.4]	74.8	(-7.9)	19.8	(1.7)	18.8	(15.4)	5.8	(9.0)
북미	[8.7]	39.8	(-14.9)	16.9	(48.1)	9.0	(-5.3)	2.1	(-15.4)
중남미	[3.8]	17.2	(-23.1)	4.7	(6.4)	4.6	(11.2)	1.5	(15.3)
중동	[2.7]	12.5	(-19.9)	2.8	(-13.3)	2.7	(-11.8)	0.9	(0.5)
기타	[2.4]	10.8	(-13.5)	2.0	(-29.5)	2.1	(-22.3)	0.7	(-29.4)

주: 1) MTI 2단위 21(석유화학제품) 기준  
2)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내는 2023년 비중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49) 2024년 3/4분기 중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기초유분 +23.9%, 합성고무 +30.5% 등

## 향후 전망

**3. 4/4분기 중 국내 석유화학산업 생산과 수출은 회복이 더딜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 개선 지연<sup>50)</sup> 등의 영향으로 국내외 석유화학제품 수요는 더디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급과잉 및 고유가<sup>51)</sup>로 4/4분기 중 수익성지표(에틸렌 스프레드)가 손익분기점을 하회<sup>52)</sup>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주요 업체의 수익성 개선도 지연<sup>53)</sup>될 전망이다.

**4.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부가가치·친환경 제품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추진<sup>54)</sup> 중이나, 그 속도는 완만<sup>55)</sup>할 것으로 보인다.** 나프타를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전통 석유화학 사업의 원가경쟁력이 약화된 데다, 글로벌 환경 규제<sup>56)</sup>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이차전지·반도체 소재, 친환경 제품 등으로의 사업구조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고부가가치·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에 대규모 투자지출이 필요한 만큼 사업전환 성과 및 속도가 재무여력 등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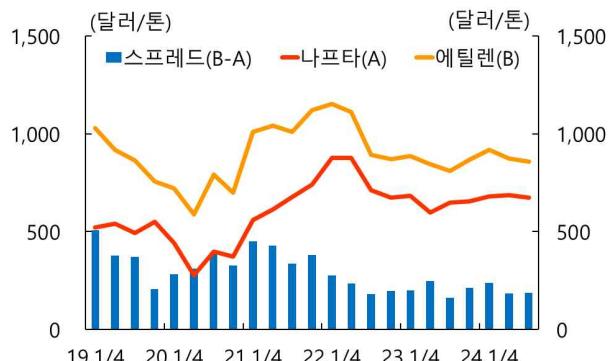
### 화학제품 매출·수출 전망은 하락 흐름

[그림 3.5] 화학제품 제조업 전망BSI



자료: 한국은행

### 수익성지표는 낮은 수준을 지속

[그림 3.6] 에틸렌 스프레드<sup>1)</sup>

주: 1) (에틸렌 가격) - (나프타 가격)

자료: 한국석유화학협회, 산업통상자원부

50) 24년 상반기 중 개선 흐름을 보이던 글로벌 제조업 PMI가 하반기 들어 기준치(50)를 하회하는 모습이다.(23.4/4분기 49.0 → 24.1/4분기 50.3 → 2/4분기 50.7 → 3/4분기 49.4) 또한 IMF는 10월 들어 국내 석유화학제품 주요 수출처의 성장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다.(24년 성장률, 중국 5.0 → 4.8, 유럽 0.9 → 0.8)

51) NCC와 ECC의 에틸렌 생산원가 차이(NCC원가/톤-ECC원가/톤)는 유가가 50달러/배럴일 때 230달러이며, 유가가 100달러/배럴로 상승하는 경우 그 차이가 800달러/톤으로 확대돼 NCC의 수익성이 저하된다. 2024년 하반기 중에도 유가가 75달러를 상회(미국 에너지관리청 전망치, 24.4/4분기 75.97달러/배럴, Brent유 기준)하며, 해외 ECC 대비 국내 NCC의 수익성 열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52) 2024년 3/4분기 중 에틸렌 스프레드는 186.5달러/톤을 기록하여 손익분기점(300달러/톤)을 큰 폭 하회하였으며, 4/4분기 중 스프레드도 손익분기점을 하회할 것으로 판단된다.

53) 24.1/4~3/4분기 중 상승하던 화학제품 제조업 업황 전망BSI가 4/4분기 들어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다.(24.1/4분기 63.3 → 2/4분기 72.7 → 3/4분기 77.3 → 10~11월 73.0)

54) LG화학(전지소재·친환경소재·신약 매출 비중을 2030년까지 57%로 확대 추진), 롯데케미칼(첨단소재·정밀화학 등 매출 비중을 2030년까지 70%로 확대 추진) 등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은 고부가가치·친환경 제품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추진 중이다.

55) SK지오센트릭은 1.8조원을 투자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단지를 울산에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석유화학 업황 부진, SK 그룹의 재무구조조정(리밸런싱) 등을 이유로 24.10월 사업 중단을 발표하였다.

56) UN은 플라스틱 생산·소비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전체 주기에 대한 의무사항 등을 다루는 국제협약을 추진 중이며, 미국도 석유화학 등 12개 탄소집약적 제품에 온실가스 배출 부담금을 부과하는 청정경쟁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 참고문헌

산업통상자원부(2024), “2024년 수출입 동향”

수출입은행(2023), “석유화학산업 현황 및 3대 리스크 점검”

한국신용평가(2024), “석유화학 산업 2024년 정기평가 결과 및 하반기 전망”

IMF(2024), “World Economic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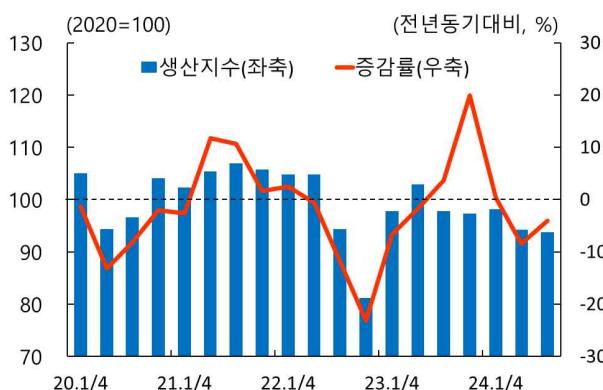
## IV 철강 [포항본부 권오익 과장]

1. 2024년 3/4분기 중 철강제품 생산은 전방산업 수요 부진, 중국산 저가 철강재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4.1% 감소하였으며, 수출은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단가 하락(-6.1%)의 영향으로 3.8% 감소하였다.
2. 향후 철강제품 생산 및 수출은 국내 건설투자 부진, 중국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동향

1. 2024년 3/4분기 중 철강제품 생산은 전방산업 수요 부진, 중국산 저가 철강재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4.1% 감소하였다. 철강제품 수요는 국내 주요 전방산업인 자동차·건설·가전 등에서 부진(각각 전년동기대비 7.1%, 8.8%, 4.3%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중국 등 후발국으로부터의 저가 철강재 수입 증가 등으로 철강제품 출하는 전년동기대비 5.0% 감소하고 재고는 9.1% 증가하였다.

#### 1차 철강제품 생산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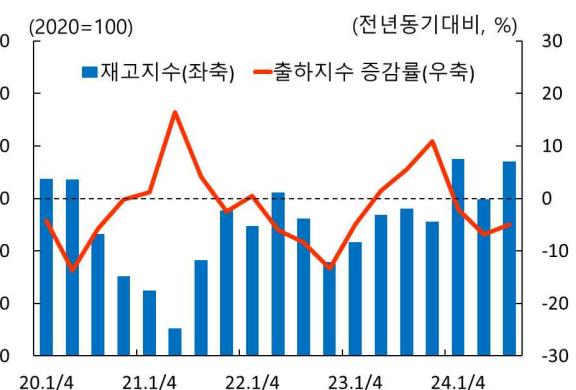
[그림 4.1] 1차 철강제품<sup>1)</sup> 생산지수

주: 1) 1차 철강제품은 슬래브, 블룸, 빌릿 등의 반제품으로 추가 공정을 통해 판재, 봉형강 등의 완제품으로 제작

자료: 통계청

#### 1차 철강제품 출하 감소 및 재고 수준 증가

[그림 4.2] 1차 철강제품 출하 및 재고지수



자료: 통계청

2. 국내 조강<sup>57)</sup>생산량은 국내 주요 철강사의 고로 노벽보수 실시<sup>58)</sup>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6% 감소하였다. 한편 철강제품의 주재료인 철광석(-12.1%)과 유연탄(-19.0%) 가격은 모두 하락하였다.

57) 조강(粗鋼, crude steel)은 강철의 제조공정 중 첫째로 나오는 강괴(鋼塊)로, 가공된 철강제품을 만드는 기본재료가 된다.

58)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2024년 7~8월 중 2·3고로 노벽보수 작업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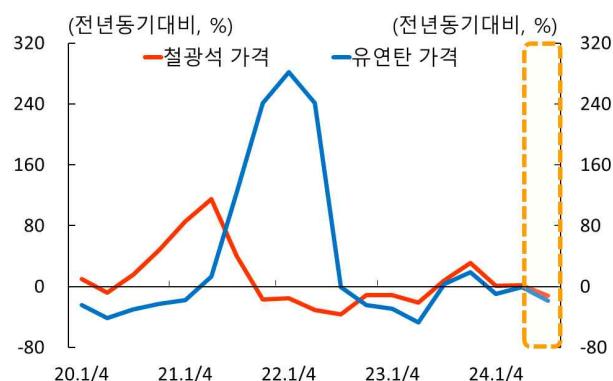
## 국내 조강생산량은 감소

[그림 4.3] 국내 조강생산량 추이



자료: 한국철강협회,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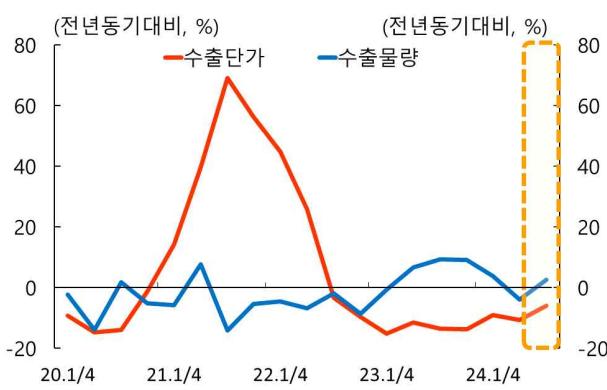
## 철광석 및 유연탄 가격은 하락

[그림 4.4] 철광석<sup>1)</sup> 및 유연탄<sup>2)</sup> 가격 상승률주: 1) 중국 텐진항 철광석 수입가(CFR, Fe 62%) 기준  
2) 호주 원료탄 수출가(FOB, Australia Premium Low Vol) 기준

자료: 한국광해광업공단

3. 2024년 3/4분기 중 철강제품(MTI 61) 수출(83.7억달러)은 수출물량의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 하락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3.8% 감소하였다. 수출물량은 중국(-19.4%), 미국(-6.9%) 및 일본(-6.8%)으로의 물량이 감소하였으나, 인도(+17.2%) 등으로의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하였다. 수출단가는 중국 및 일본산 철강제품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6.1% 하락하였다. 수출금액을 보면 중국(-17.5%), 미국(-10.3%), 일본(-5.5%) 등에서 감소하였다.<sup>59)</sup>

## 철강제품 수출물량은 증가, 수출단가는 하락

[그림 4.5] 철강제품 수출물량 및 단가<sup>1)</sup> 추이

주: 1)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금액 및 수출물량 기준, 자체 시산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철강제품 수출금액은 감소

[그림 4.6] 철강제품 수출 추이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59)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의 수출이 부진한 것은 중국의 철강제품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에 주로 기인한다. 중국은 자국내 철강 수요 부진에 따른 재고 증가를 수출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의 철강제품 누적 수출물량은 8,071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21.2% 증가하였다.(중국 해관총서)

## 주요 수출 대상국별 철강제품 수출금액은 중국·미국·일본은 감소, 인도는 소폭 증가

【표 4.1】 2024.3/4분기 주요 수출 대상국별 철강제품 수출 증가율

	전체	중국	미국	일본	인도	기타	(전년동기대비, %)
수출금액	-3.8	-17.5	-10.3	-5.5	1.1	0.3	
수출물량	2.5	-19.4	-6.9	-6.8	17.2	7.5	
수출단가	-6.1	2.4	-3.6	1.4	-13.8	-6.7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및 자체 시산

## 향후 전망

**4. 향후 철강제품 생산은 국내 건설투자 부진<sup>60)</sup>, 중국 부동산 경기회복 자연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철강협회(2024.10월)는 2025~2026년 철강 수요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중국 부동산 부문의 안정화 상황, 주요국의 정책금리 조정이 소비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탈탄소·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출 등을 제시하였다.<sup>61)</sup>

**5. 철강제품 수출은 단가 하락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단가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다소간의 등락은 있겠지만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하방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60)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2024년 0.8%, 2025년 0.7%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4.8월)

61) 세계철강협회는 글로벌 철강 수요가 2024년 0.9% 감소(2024.4월 전망치(+1.7%) 대비 2.6%p 하향 조정), 2025년 1.2% 증가하고,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철강 수요는 2024년 2.0% 감소, 2025년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2024.10.14.)

## 참고문헌

동국씨엠(2024)·동국제강(2024), “2024년 3분기 경영실적”

스틸데일리(2024), 신문자료 및 DB센터

키움증권(2024), “Steel&Metal Weekly”

키움증권(2024), “3Q24 철강금속 프리뷰”

통계청(2024), “산업활동동향”

포스코홀딩스(2024), “2024.3Q 실적발표 기업설명회”

하나증권(2024), “철강금속 Weekly”

하이투자증권(2024), “Steel Weekly”

한국광해광업공단(2024), “주간 광물가격 동향”

한국광해광업공단(2024), “월간자원 Insight”

한국무역협회(2024),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한국은행(2024),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철강협회(2024), “월간 철강보”

현대제철(2024), “2024년 3분기 경영실적설명회”

World Steel Association(2024), “Crude Steel Production”

World Steel Association(2024), “Worldsteel Short Range Outlook October 2024”

##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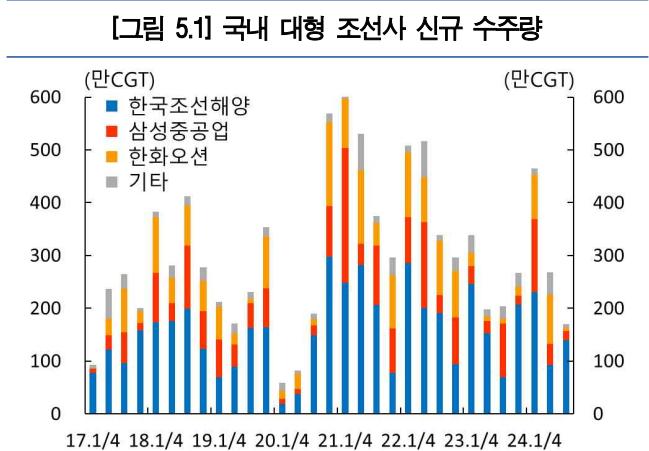
## 조선 [경남본부 정필문 과장, 황나윤 조사역]

- 2024년 3/4분기 중 국내 조선사의 신규 수주는 LNG선, 유조선, 가스선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6.5% 감소하였다. 수주잔량은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선박 생산 및 수출은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다.
- 향후 조선업 신규 수주는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은 신조선가 상승세 지속, 후판가격 하향 안정화 등으로 개선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숙련 근로자 부족,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의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 최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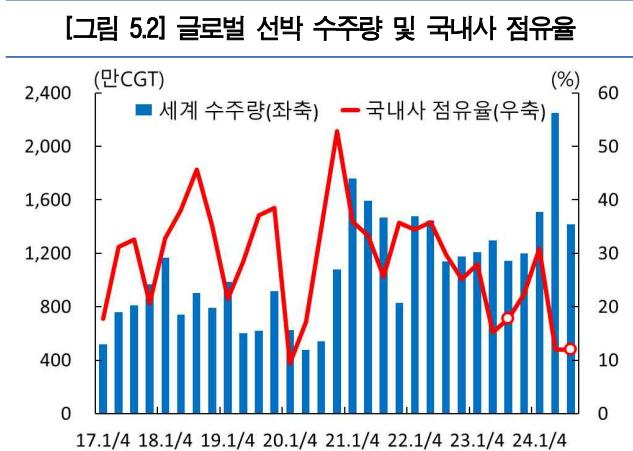
1. 2024년 3/4분기 중 국내 조선사의 신규 수주는 170.1만CGT로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sup>62)</sup>가 이어지면서 전년동기대비 16.5% 감소하였다.<sup>63)</sup>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사의 시장 점유율도 2023년 3/4분기 17.9%에서 11.0%로 하락하였다. 국내 조선사의 선종별 수주를 살펴보면 LNG선(17.1만CGT, 전년동기대비 -34.4%), 유조선(7.3만CGT, -62.8%), 가스선(25.7만CGT, -27.9%) 등이 감소하였다. 한편 컨테이너선(107.8만CGT, +4.8%)의 경우 홍해 사태 장기화에 따른 수요 증가 및 신조선가 상승 등으로 지난 분기에 이어 신규 수주가 증가하였다.

국내 조선사의 신규 수주량은 전년동기대비 감소



자료: Clarksons

국내 조선사의 신규 수주 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하락



자료: Clarks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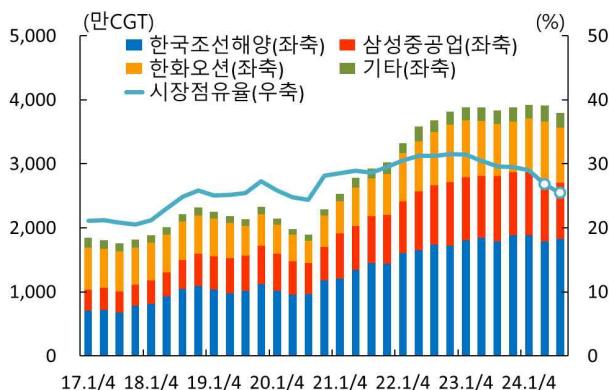
62) 국내 조선사는 2028년까지 약 3,700만CGT의 수주잔량이 축적되어 있어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가 강화되는 추세이다.(하나금융연구소, 2024.10)

63) 3/4분기 글로벌 신규 수주가 전년동기대비 23.8% 증가한 가운데 국가별 신규 수주는 중국 +47.7%, 일본 -80.3%를 기록하였다.(Clarksons)

**2. 2024년 3/4분기 말 국내 조선사 수주잔량은 3,793.0만CGT로 전분기(3,914.3만CGT)대비 3.1% 감소하였다.** 선종별 수주잔량은 LNG선이 2,007.2만CGT로 가장 높은 비중(52.9%)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컨테이너선(804.2만CGT, 21.2%), 유조선(356.5만CGT, 9.4%), 가스선(334.5만CGT, 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국내 조선사 수주잔량 및 시장 점유율은 전분기대비 감소

[그림 5.3] 국내 조선사 수주잔량 및 시장 점유율



자료: Clarksons

#### 수주잔량은 LNG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의 순

[표 5.1] 국내 조선사 3/4분기 말 주요 선종별 수주잔량

	LNG선	컨테이너선	가스선 <sup>2)</sup>	유조선 <sup>3)</sup>
국내전체	2,007.2	804.2	334.5	356.5
한국조선 <sup>1)</sup>	800.3	440.5	285.7	215.9
삼성	584.5	218.2	20.2	6.0
한화	622.4	105.3	28.7	30.2

주: 1)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삼호 통합법인  
2) LPG, 암모니아, LCO2 등 운반선(LNG 제외)  
3)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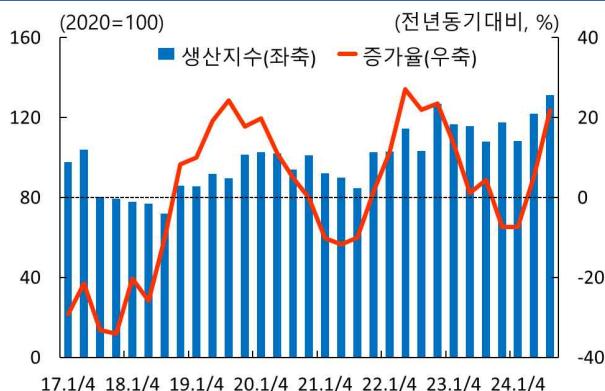
자료: Clarksons

### 3. 2024년 3/4분기 중 선박 생산은 호조세를 지속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1.8% 증가하였다.

3/4분기 중 선박 수출도 전년동기대비 35.7% 증가한 62.8억달러를 기록하였다.

#### 선박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큰 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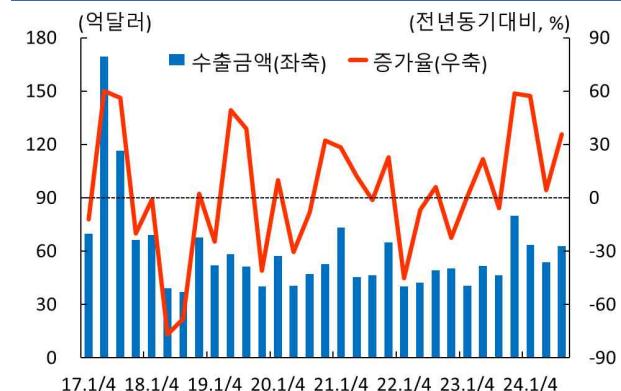
[그림 5.4] 전국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생산지수



자료: 통계청

#### 선박 수출금액은 전년동기대비 증가

[그림 5.5] 선박 수출금액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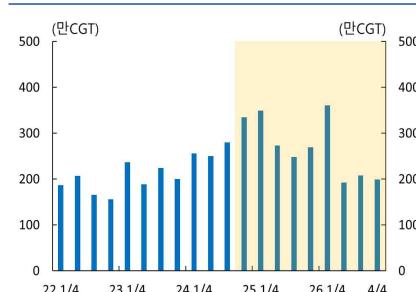
**4. 조선업 경기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sup>64)</sup> 등으로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수주 물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도 노후 선박 교체 수요,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신조선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내 조선사들이 이미 3~4년치 수주잔량을 확보한 가운데 선별 수주가 강화되면서 수주 증가세는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5. 국내 조선사의 수익성은 개선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신조선가 상승세<sup>65)</sup>가 지속되는 가운데 과거 수주한 적자선종 물량이 해소되고 후판가격<sup>66)</sup>도 하향 안정화되면서 수익성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6. 숙련 근로자 부족,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은 중기적 리스크 요인이다.** 전반적인 인력 사정은 외국인 노동자 채용 등으로 다소 개선<sup>67)</sup>되었으나, 생산성이 높은 국내 숙련 근로자 부족 문제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중국 조선사<sup>68)</sup>의 생산시설 증설과 저가수주 경쟁 등이 중기적 리스크 요인으로 우려된다.

생산 및 수주는 양호할 전망

[그림 5.6] 국내 조선사 인도(예정)량<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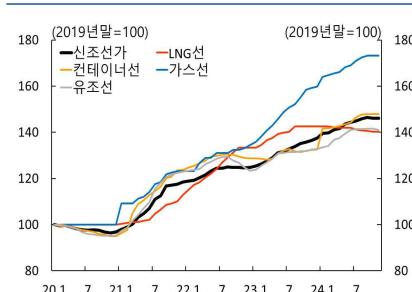


주: 1) 음영 부분은 인도예정량

자료: Clarksons

신조선가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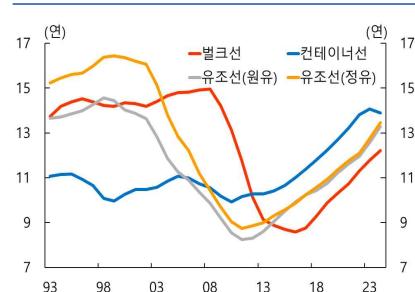
[그림 5.7] 선종별 신조선가



자료: Clarksons

평균 사용연수 증가로 노후선 교체 수요가 증가될 전망

[그림 5.8] 선박 평균 사용연수



자료: Clarksons

64) 2023.1월 에너지효율지수(EEXI) 및 탄소집약도지수(CII) 도입을 기점으로 친환경 및 탄소배출 등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Clarksons)

65) 신조선가는 2020.11월 이후 상승세(2020.11월 96.37 → 2024.10월 146)가 이어지고 있다.

66) 후판가격은 2023.5월 이후 하락세(포스코 2023.5월 1,185(kg/원) → 2024.10월 900(kg/원), 현대제철 1,185 → 900)이다.(스틸데일리)

67) 경남지역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체 중 인력문제를 주요 경영애로사항으로 응답한 비중이 최근 들어 다소 완화 (2022.7~2024.7월 월평균 51.9% → 2024.8~2024.10월 월평균 27.1%)되는 모습이다.(한국은행 경남본부 기업경기조사)

68) 3/4분기 중 중국 조선사 신규 수주는 컨테이너선(3,619.9만CGT, 전년동기대비 +409.9%)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하였고,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선(85.9만CGT, +41.8%), 가스선(89.6만CGT, +82.1%) 등의 수주도 증가하였다.(Clarksons)

## 참고문헌

스틸데일리, “DB센터>국내가격>후판(Plate)”

박진우(2024), “中조선, 넘치는 일감에 대규모 투자... 韓은 선택과 집중”, 조선비즈, 7월 23일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하나금융연구소(2024), “2025년 일반산업 전망 - 피벗의 훈풍에도 길어지는 저성장의 그림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금액(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한국은행 경남본부, “경남지역 기업경기조사”

Clarksons, “신규수주·수주잔량·신조선가 통계”

Clarksons, “Decarbonising shipping - Informing solutions that help reduce carbon emissions across the maritime industry”

VI

## 디스플레이 [대전세종충남본부 정혜윤 과장, 임연빈 조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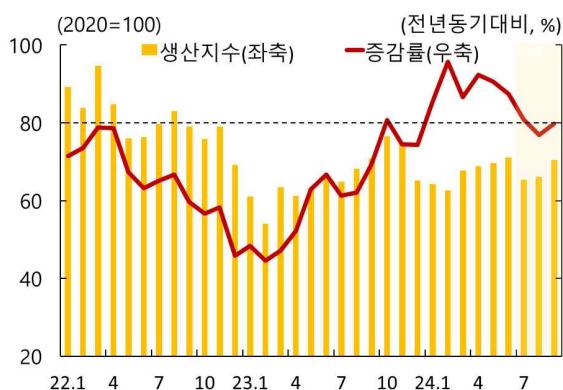
- 2024년 3/4분기 중 디스플레이 생산과 수출은 LCD 패널을 중심으로 부진하며 모두 감소로 전환하였다.
- 향후 디스플레이 산업 업황은 IT용 OLED 탑재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형 LCD 패널 관련 구조조정 진행, 글로벌 업체 간 가격 및 점유율 경쟁 심화 등으로 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 최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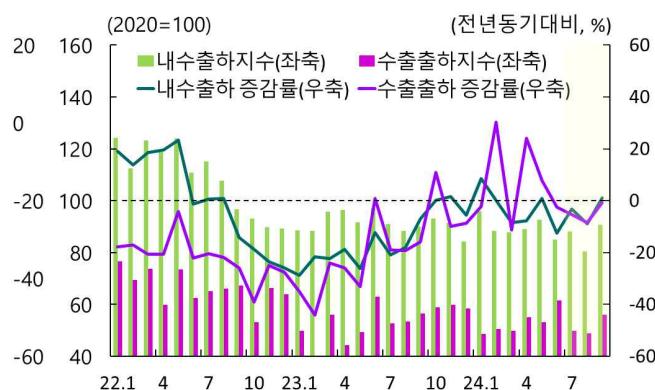
1. 2024년 3/4분기 중 디스플레이 생산은 대형 모니터용 LCD를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2분기 만에 감소(전년동기대비 -0.8%)로 전환하였다. 디스플레이 생산지수는 국내 기업의 OLED 시장 점유율 회복<sup>69)</sup>, 아이패드 프로 등 IT 기기용 OLED 탑재 확대<sup>70)</sup> 등에도 불구하고 LCD 패널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지속되면서 감소하였다.

디스플레이 생산은 감소로 전환

국내 업체의 패널 내수출하는 감소세 유지, 수출출하는 감소 전환

[그림 6.1] 디스플레이 생산지수<sup>1)</sup>

주: 1) 전자 부품 제조업 기준  
자료: 통계청

[그림 6.2] 디스플레이 출하지수<sup>1)</sup>

주: 1) 전자 부품 제조업 기준  
자료: 통계청

69) 2024년 1/4분기 중 글로벌 OLED 시장 점유율(출하량 기준)은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의 자국산 패널 탑재 비중 확대 정책 등의 영향으로 중국(49.8%)이 한국(48.9%)을 최초로 역전하였으나 2/4분기 중 한국(49.9%)이 중국(49.0%)을 재 역전하였다. 또한 3/4분기 중에는 한국(55.0%)과 중국(44.0%)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면서 한국의 OLED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Om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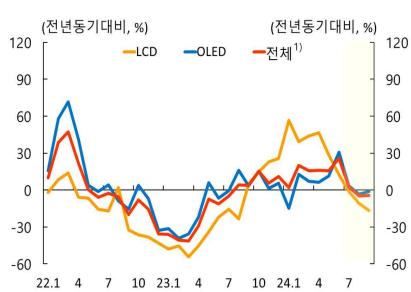
70) 유비리서치는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가 2024년 5월 출시한 애플(Apple)의 아이패드 프로 11·13인치 모델에 탑재되는 탠덤 OLED 스택 패널을 공급하고 있으며 3/4분기 중 아이패드용 OLED 패널을 각각 110만대, 90만대 출하한 것으로 추산하였다.

**2. 수출은 OLED와 LCD 모두 부진하면서 2023년 2/4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로 전환(전년동기대비 -2.3%)하였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금년 상반기 중 TV, PC 등 IT 전방기기의 수요 회복과 AI 적용 IT 신제품의 OLED 탑재 확대 등에 따라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오다가, 3/4분기에는 감소로 전환되는 모습이다.<sup>71)</sup> 한편 국가별로는 **對베트남** 수출(전체 수출의 61.8%)은 큰 폭으로 감소<sup>72)</sup>하였으며 **對중국** 수출(전체 수출의 25.2%)은 전분기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3. 패널 가격은 OLED 패널의 경우 상승 또는 보합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LCD 패널은 하락 전환하였다.** 중소형 OLED 패널 가격은 신규 스마트폰 출시<sup>73)</sup> 등으로 상승 전환(전년동기대비 +2.8%, 전분기대비 +16.9%)하였으며, 대형 OLED 패널 가격도 하락폭이 둔화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전년동기대비 -9.8%, 전분기대비 0.0%)하였다. 반면 대형 LCD 패널 가격은 하락 전환(전년동기대비 -6.8%, 전분기대비 -8.8%)하였다. 이에 따라 대형 OLED 패널과 대형 LCD 패널 간 가격 차이는 3.0배로 재차 확대<sup>74)</sup>되었다.

#### 디스플레이 수출은 OLED와 LCD 패널 모두 감소 전환

[그림 6.3] 디스플레이 패널별 수출 증가율<sup>1)</sup>



주: 1)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MTI 836)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 對베트남 수출은 감소로 전환 vs 對중국 수출은 높은 증가세 지속

[표 6.1] 디스플레이 수출 국가별 증가율<sup>12)</sup>

분류	(전년동기대비, %)		
	24.1Q	2Q	3Q
디스플레이	12.4	19.4	-2.3
(베트남) [61.8]	-4.5	11.2	-11.7
(중국) [25.2]	26.0	26.8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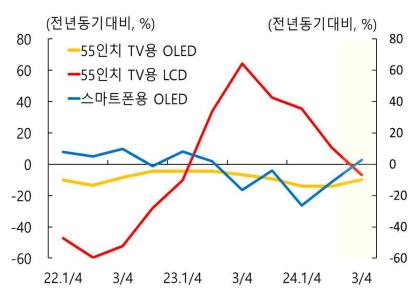
주: 1)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MTI 836) 기준

2) []내는 2024년 3/4분기 중 수출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 중소형 OLED 패널 가격 상승세로 전환, 대형 LCD 패널 가격은 하락

[그림 6.4]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 증가율



자료: Omdia, KDIA

71) 2024년 3/4분기 LCD(MTI 836110)의 수출 규모는 약 11.3억달러로 패널가격 하락(55인치 TV용 LCD 기준, -6.8%)과 맞물리면서 전년동기대비 9.3% 하락하였다.(한국무역협회, Omdia)

72) 평판 디스플레이(MTI 836) 기준 2023년 3/4분기 **對베트남** 수출액은 약 37.2억달러였으며, 2024년 3/4분기 수출액은 약 32.9억달러로 집계되었다.

73) 2024년 9월 OLED를 탑재한 아이폰16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애플의 3/4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대비 5.0% (전기대비 12.8%) 증가했다.(Counter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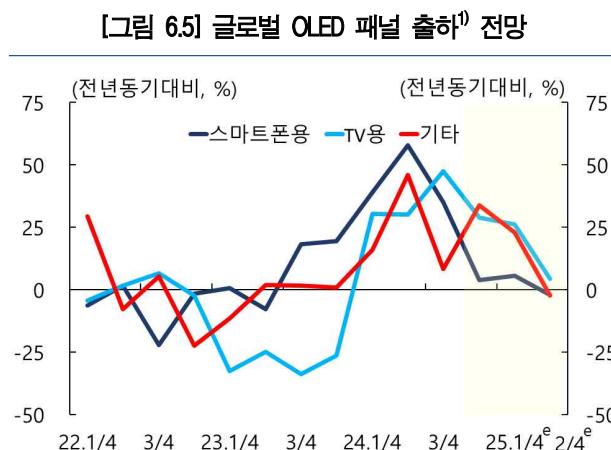
74) 대형 OLED와 LCD 패널 간 가격비율(OLED 패널 가격÷LCD 패널 가격)은 2022년 3/4분기 중 5.3배를 기록한 이후 축소세를 보이며 2024년 2/4분기 중 최저치(2.7배)를 기록한 바 있다.

## 향후 전망

**4. 향후 디스플레이 산업 업황은 IT용 OLED 패널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형 LCD 패널 관련 구조조정 진행<sup>75)</sup>, 글로벌 업체 간 가격 및 점유율 경쟁 심화 등으로 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연말을 앞두고 중국 정부의 국가 보조금 지원을 통한 수요 진작<sup>76)</sup>으로 시장 수요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국내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약화<sup>77)</sup>로 LCD 패널 생산구조 개편이 이뤄지는 등 디스플레이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업황은 당분간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5. 국내외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OLED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사업구조 개편 등 신규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 등 해외 기업들은 8.6세대 OLED 시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설비투자<sup>78)</sup>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도 OLED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 또는 설비구축 계획 조기 추진<sup>79)</sup> 등 공격적인 설비투자를 추진 중이다.

향후 디스플레이 산업은 개선세가 둔화되며  
당분간 보합세를 보일 전망



주: 1) 수량 기준 2) 음영 부분은 전망치 기준  
자료: Omdia

OLED를 중심으로 신규 투자는 확대될 전망

[표 6.2] 제품별 OLED 시장 전망

분류	24	25	26	27	28
스마트폰	806.2 (29.7)	836.4 (3.7)	865.8 (3.5)	895.9 (3.5)	930.9 (3.9)
TV	6.8 (28.9)	7.5 (10.6)	8.1 (6.8)	8.6 (7.0)	9.1 (5.3)
노트북	5.3 (29.9)	7.0 (32.8)	14.0 (98.7)	27.6 (97.4)	40.8 (47.5)
태블릿	12.1 (221.1)	16.8 (38.3)	18.3 (9.4)	20.9 (13.8)	26.3 (25.8)

자료: Omdia, KDIA

75)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LCD 시장 점유율은 2024년 현재 63%이나 중국 TCL 계열사인 차이나스타(CSOT)가 2024년 9월 LG디스플레이가 보유하고 있는 대형 LCD 패널 및 모듈 공장 지분(중국 광저우 소재)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향후 중국의 LCD 시장 점유율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Omdia)

76) 2024년 9월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NDRC)는 소비재 보상판매를 위하여 약 28.7조원의 국채를 발행하였으며, TV, 냉장고, 세탁기 등 8가지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에너지 효율 등급별로 판매가격의 15~20%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중국 시장 내에서 약 300만대의 TV세트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DSCC)

77) Omdia는 중국 제조사들이 초대형 LCD TV 시장에 집중하면서 생산성이 개선되고 생산 단가가 큰 폭으로 낮아져 중국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78) 중국 BOE는 약 630억위안(약 12조원)을 투자하여 2024년 9월 25일 쓰촨성 청두시에 8.6세대 AMOLED 공장건물을 완공하였으며 향후 본격적인 설비 반입을 시작하여 2026년 4/4분기부터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 비전옥스는 2024년 9월 2일 550억위안(약 10.4조원) 규모의 8.6세대 OLED 공장 투자를 확정지었으며 2024년 내 허페이시 신잔 하이테크산업개발구에 착공할 계획이다.

79) 삼성디스플레이는 2023년 세계 최초 8.6세대 IT OLED 생산 공장 A6 투자를 공식화하며 기존 2026년 양산계획이었던 것을 앞당겨 2025년 말까지 4.1조원을 투자해 OLED 패널을 양산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2024년 3월부터 A6라인의 증착기 반입을 시작으로 설비를 구축 중이다.

## 참고문헌

미래에셋증권(2024), “월간 리서치[전기전자/IT하드웨어]”

산업통상자원부(2024), “2024년 9월 수출입 동향”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한국무역협회, “K-stat 무역통계”

Counterpoint(2024), “Mobile Handset Shipment Forecast”

IBK투자증권(2024), “월간 디스플레이 패널 동향”

Omdia(2024), “Display Dynamics”

Omdia(2024), “Large Area Display Market Tracker”

Omdia(2024), “PriceWise”

Omdia(2024), “Small Medium Display Market Tracker”

VII

## 휴대폰 [대구경북본부 정유정 조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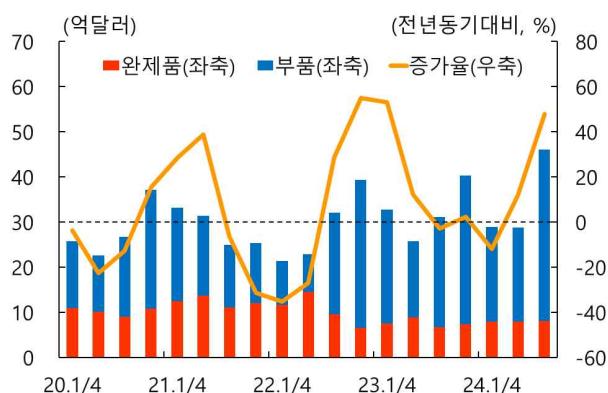
- 2024년 3/4분기 중 휴대폰 및 부품 수출은 완제품(+19.7%) 및 부품(+55.4%) 수출이 모두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47.7% 증가하였다. 향후 휴대폰 및 부품 수출은 AI 탑재 휴대폰 및 고성능 부품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삼성전자의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아이폰16 대기수요, 내수시장 판매 부진 등으로 소폭 감소(-0.3%) 하였으며, 향후에도 경쟁업체의 신제품 출시에 따른 경쟁 심화 등으로 보합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최근 동향

1. 2024년 3/4분기 중 휴대폰 및 부품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7.7% 증가하였으며, 품목 별로는 완제품이 19.7%, 부품은 55.4% 증가하였다. 휴대폰 완제품의 경우 미국·베트남으로의 수출은 줄어들었으나, EU로의 수출이 소비 개선 및 파리 올림픽의 영향<sup>80)</sup> 등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증가하였다. 휴대폰 부품 수출은 애플, 화웨이 등 주요 업체의 신제품 출시<sup>81)</sup> 영향으로 큰 폭 늘어나며 전체 휴대폰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휴대폰 생산 기지가 집중되어 있는 중국 및 베트남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었다.

### 휴대폰 및 부품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7.7% 증가

[그림 7.1] 휴대폰 및 부품 수출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완제품과 부품 수출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

[그림 7.2] 2024년 3/4분기 휴대폰 및 부품 수출

	완제품		부품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미국	0.27	-92.7	0.37	14.8
EU <sup>1)</sup>	5.57	347.0	0.81	21.4
중국 <sup>2)</sup>	0.44	69.4	28.01	80.2
베트남	0.04	-9.9	6.10	17.5
인도	0.02	4.5	0.51	-26.2
전체	8.01	19.7	37.99	55.4

주: 1) 영국 포함 2) 홍콩, 마카오 포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80) 2024년 3/4분기 중 EU 휴대폰 완제품 수출은 7월 60.8%, 8월 1,220.1%, 9월 710.9%(영국 제외, 전년동기대비)로 급증했다.(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중 유럽지역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2024.1/4분기 0.2% → 2/4분기 0.1% → 3/4분기 (잠정) 0.4%(전기비, ECB)로 3/4분기 들어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인플레이션 둔화, 양호한 고용 상황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통상 올림픽 기간에는 TV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파리 올림픽 기간 중에는 스마트폰으로 시청하는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스마트폰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81) 애플과 화웨이는 9월 10일 아이폰16과 메이트XT를 각각 출시하였다.

**2. 3/4분기 중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물량기준)은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하였으나 삼성전자의 출하량은 0.3% 감소하였다.**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주요 업체들의 주력 모델 출시, 신흥 경제 국가들의 견조한 수요 등에 힘입어 증가(+4.6%)하였다. 주요 업체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은 아이폰16 대기수요, 내수시장 판매<sup>82)</sup> 및 북미·중동 등으로의 수출 부진 등으로 소폭 감소(-0.3%)하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전년동기(19.8%)에 비해 0.9%p 낮아진 18.9%를 나타내었다. 애플의 경우 북미·EU 시장 출하량은 전년동기대비 5.0% 증가하였으나, 중국시장에서는 판매가 부진<sup>83)</sup>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이 0.1%p 높아지는 데 그쳤다.(2023.3/4분기 16.3% → 2024.3/4분기 16.4%) 중국 경쟁업체(화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자국 내수시장에서의 수요 증가, 유럽 등으로의 수출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0.4%p 상승(37.9% → 38.3%)하였다.

###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글로벌 출하량은 전년동기대비 0.3% 감소

[표 7.2] 주요 업체별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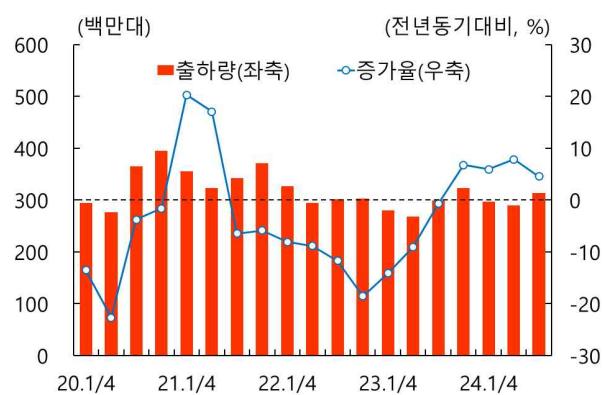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												
	21.3/4	4/4	22.1/4	2/4	3/4	4/4	23.1/4	2/4	3/4	4/4	24.1/4	2/4	3/4
삼성	-138	10.4	-2.8	8.5	-7.2	-155	-186	-144	-7.6	-9.1	-1.0	0.9	-0.3
애플	15.1	-0.5	-0.8	-4.9	2.5	-141	-1.7	-2.6	-0.6	5.7	-128	0.4	5.0
오포·비보·샤오미	3.1	-5.1	-243	-237	-175	-205	-184	-146	-5.8	1.1	11.1	17.3	4.6
화웨이·아너	-601	-379	-1.8	24.5	4.3	-8.6	-4.5	1.4	26.2	53.2	45.0	35.8	8.6
전체	-6.5	-5.9	-8.0	-8.9	-11.7	-185	-141	-9.0	-0.7	6.8	6.0	7.9	4.6

자료: Counterpoint

###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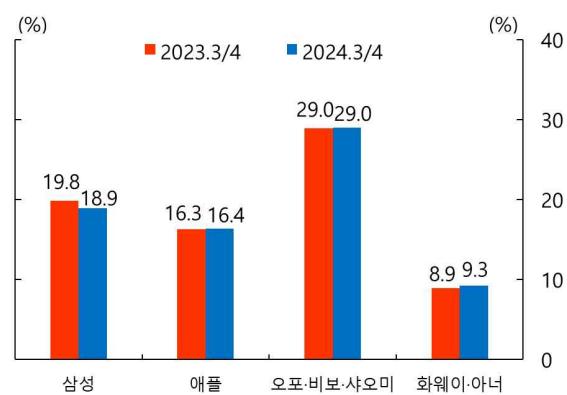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감소, 애플 및 OVV<sup>1)</sup>는 보합, 화웨이는 증가

[그림 7.2]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



자료: Counterpoint

[그림 7.3] 주요 업체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주: 1) 오포(Oppo), 비보(Vivo), 샤오미(Xiaomi)

자료: Counterpoint

82) 갤럭시Z폴드·플립 시리즈의 국내 사전판매량은 3세대 92만대 → 4세대 97만대 → 5세대 102만대로 증가하다가 지난 7월 출시된 갤럭시Z폴드·플립6의 경우 91만대로 감소하였다.

83) 화웨이는 세계 최초로 두 번 접는 방식인 트리폴드(tri-fold)폰인 메이트XT를 출시하고 동일자 공개·동일자 판매 개시라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이용하여 애플과의 신제품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

## 향후 전망

**3. 향후 휴대폰 및 부품 수출은 AI 탑재 휴대폰 및 고성능 부품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완제품 수출은 AI 스마트폰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외 사업장 간 생산조정, 중국시장 내 애국소비 등으로 증가 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품 수출은 AI 소프트웨어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성능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계속되면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애플은 12월부터 AI 기능을 본격적으로 탑재하기 위해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계획<sup>84)</sup>하고 있다. AI 기능이 안정적으로 구동되려면 고성능 메모리 등이 필요해 관련 부품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4. 향후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글로벌 출하량은 보합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삼성전자는 보급형 AI 폰, 프리미엄 폴더블폰 등<sup>85)</sup> 상품군을 확대하면서 주력 시장(동북아시아, 북미, EU 등) 내 판매 중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중국 등 경쟁업체들이 연내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데다 상위 5개 공급업체(삼성, 애플, 샤오미, 오포, 비보) 간 점유율 격차가 좁혀지는<sup>86)</sup> 추세이고, 삼성 폴더블폰 판매도 크지 않은 점 등이 수출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삼성전자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축적된 AI 기술을 제품화하고 폴더블폰의 내구성<sup>87)</sup>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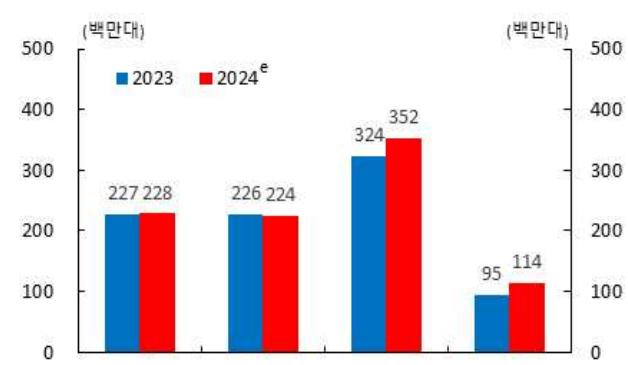
글로벌 휴대폰 출하량은 전년대비 증가할 전망



자료: Counterpoint

중국 주요 업체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삼성은 보합, 애플은 소폭 감소할 전망

[그림 7.5] 주요 스마트폰 업체별 생산량 전망



자료: Counterpoint

84) 애플은 올해 12월부터 자체 인공지능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각국에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는 아이폰15Pro 및 아이폰16부터 적용된다.

85) 삼성전자는 10월 3일 S시리즈와 유사한 수준의 AI 기능이 탑재된 보급형 S24 FE를 출시하였고 프리미엄형으로는 10월 25일 갤럭시Z폴드 SE를 출시했다. 갤럭시Z폴드 SE는 지난 7월 갤럭시Z폴드6 출시 이후 3개월 만에 공개되었다.

86) IT 시장조사업체인 카날리스가 공개한 2024년 3/4분기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각각 18%대였으며 IDC가 공개한 3/4분기 점유율 격차는 0.6%였다. 그 외 3개 공급업체들의 점유율도 전년동기대비 상승했다.

87) 9월 출시된 화웨이의 메이트XT는 출시 이후 화면 깨짐 등의 내구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 참고문헌

김록호 외(2024), “7~8월 Monthly 휴대폰/부품 스마트폰 판매량 잡정치”, 하나증권

박준서(2024), “월간 리서치[전기전자/IT하드웨어] 10월 : Rock Bottom”, 미래에셋증권

산업통상자원부(2024), “2024년 7~9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현황”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2024), “최근 유로지역 경제동향 및 전망”

한국무역협회(2024), “2024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Counterpoint(2024), “Market Pulse OEM Sales”

Counterpoint(2024), “Mobile Device Forecast”

Counterpoint(2024), “Mobile Handset Shipment Forecast by Brand Region(Long Term)”

## VIII 이차전지 [충북본부 안시완 조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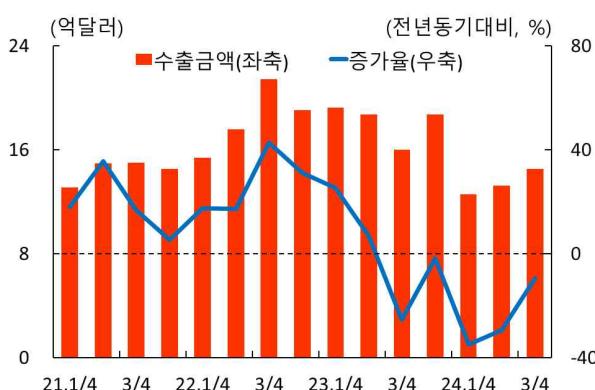
- 2024년 3/4분기 중 이차전지 및 양극재 수출은 모두 글로벌 전기차 시장 부진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이차전지의 경우 미국에서 ESS용 이차전지 수요가 크게 확대되면서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 4/4분기 중 이차전지 및 양극재 수출은 판매가격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전방산업의 연말 재고조정 등의 영향으로 수출물량도 줄면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의 리튬 광산 생산 축소와 완성차업체의 일부 신제품 출시 등이 수출 부진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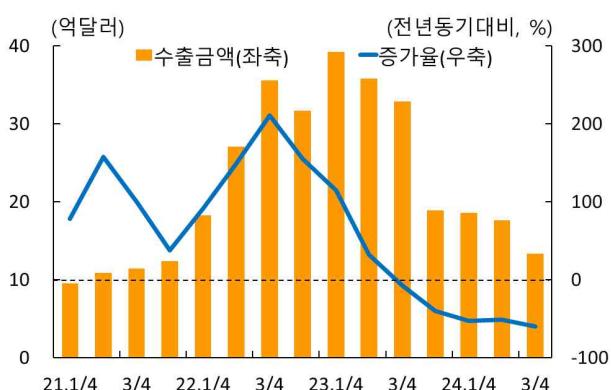
- 2024년 3/4분기 중 이차전지 및 양극재(이차전지 주요 소재) 수출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9.3%, 59.5% 줄어들면서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다만 이차전지의 경우 전분기(-29.4%)보다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이차전지 수출은 감소폭이 축소된 반면, 양극재(이차전지 주요 소재) 수출은 큰 폭의 감소세 지속

[그림 8.1] 이차전지 수출



[그림 8.2] 양극재 수출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이차전지 수출의 감소폭 축소는 유럽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미국시장에서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장치)용 전지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다. 3/4분기 중 유럽에 대한 이차전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8.5% 줄어들며 전분기(-25.8%)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반면 우리나라 이차전지 수출의 가장 큰 비중<sup>88)</sup>을 차지하는 미국으로의 수출은 ESS용 이차전지(+134.9%)를 중심으로 11.2% 늘어나며 전분기(-47.7%)의 큰 폭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태양광 패널 및 배

88) 2023년 중 우리나라 이차전지 수출의 국가별 비중은 미국 57.0%, 유럽 20.3% 등의 순이다.

터리 가격 하락, 대규모 산업용 태양광 단지 건설 등으로 ESS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sup>89)</sup> 이에 따라 이차전지 수출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EV용 수출(24.2/4분기 -50.3% → 3/4분기 -71.1%)은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나, ESS용 수출(+7.9% → +70.8%)은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 미국으로의 이차전지 수출이 증가로 전환

[표 8.1] 우리나라의 국가별 이차전지 수출<sup>1)</sup>

	2024.2/4분기		3/4분기		(억달러, %)
	미국	유럽	중국	(-21.0)	
미국	5.8	2.6	0.5	(-47.7)	9.6
유럽				(-25.8)	1.9
중국				(-21.0)	0.9

주: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ESS용 이차전지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표 8.2] 우리나라의 용도별 이차전지 수출<sup>1)</sup>

	2024.2/4분기		3/4분기		(억달러, %)
	이차전지	EV	ESS	(7.9)	
이차전지	13.2	3.5	6.8	(-29.4)	14.5
EV				(-50.3)	1.9
ESS				(-71.1)	8.9

주: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 양극재 수출은 유럽, 중국, 미국 등 주요 대상국에 대한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3/4분기 중 최대 수출국인 유럽<sup>90)</sup>에 대한 양극재 수출은 전기차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50.9% 줄어들며 전분기(-52.8%)에 이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중국 (-57.3% → -68.9%)과 미국(-39.3% → -77.1%)에 대한 수출은 전분기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 주요 수출국으로의 양극재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

[표 8.3] 우리나라의 국가별 양극재 수출<sup>1)</sup>

	2024.2/4분기		3/4분기		(억달러, %)
	유럽	중국	미국	(-39.3)	
유럽	7.9	5.7	2.8	(-52.8)	7.4
중국				(-57.3)	3.8
미국				(-39.3)	1.0

주: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유럽지역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

[표 8.4]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

	24.1/4분기			2/4분기			7~8월			(전년동기대비, %)
	중국	북미	유럽	중국	북미	유럽	7~8월			
중국	26.8	15.4	8.0	33.8	7.4	-1.3	32.9			
북미										
유럽										

자료: SNE Research

89) 신재생에너지는 전력 생산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생산된 전력을 보관하는 에너지저장장치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90) 2023년 중 우리나라 양극재 수출의 국가별 비중은 유럽 45.9%, 중국 36.6% 등의 순이다.

**4. 국내 이차전지 및 양극재 생산 주요 기업의 영업실적은 부진하였다.** 3/4분기 중 이차전지 제조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29.8% → -16.4%)과 삼성SDI(-23.8% → -29.8%)의 매출액은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비엠(-57.5% → -71.1%)의 매출액도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갔다.

#### 국내 주요 기업의 영업실적은 부진한 모습이 지속

[표 8.5] 국내 주요 기업 실적<sup>1)</sup>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에코프로비엠		(천억원, %)
매출액	24.2/4분기	61.6	(-29.8)	44.5	(-23.8)	8.1	(-57.5)	
	24.3/4분기	68.8	(-16.4)	39.4	(-29.8)	5.2	(-71.1)	
영업이익	24.2/4분기	2.0	(-57.6)	2.8	(-37.8)	0.04	(-96.6)	
	24.3/4분기	4.5	(-38.7)	1.3	(-72.1)	-0.4	적자전환	

주: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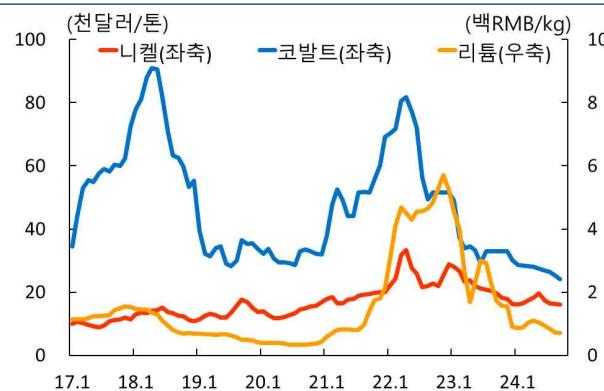
자료: FnGuide, 각사 발표

## 향후 전망

**5. 4/4분기 중 이차전지 및 양극재 수출은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적으로 4/4분기에는 전방산업의 연말 재고 조정 등으로 수출물량이 감소하는 데다, 주요 원재료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차전지·양극재 판매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글로벌 1위 리튬 구매자인 CATL이 리튬 광산 생산을 중단(24.9월)하는 등 주요 원재료의 공급과잉이 해소될 여지<sup>91)</sup>가 있고, 연말에 주요 완성차업체의 신제품<sup>92)</sup>이 출하되는 점은 4/4분기 업황에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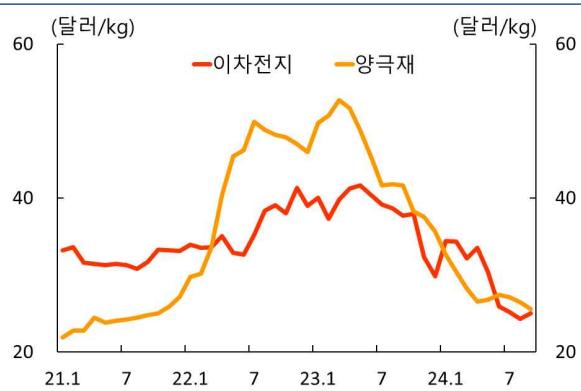
#### 주요 광물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이차전지와 양극재 판매가격 하락세도 이어져 왔다.

[그림 8.3] 주요 광물 가격



자료: 한국자원정보

[그림 8.4] 이차전지 및 양극재 판매가격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91) UBS에 따르면 CATL의 감산 결정으로 중국 월간 탄산리튬 생산량이 약 8% 감소하면서 금년말 기준 리튬가격이 기준보다 11~23%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92) 2024년말 테슬라의 스펙 변경 제품(신형 2170 원통형 배터리 탑재) 및 르노의 R5 E-Tech 출하가 시작될 예정이다.

**6. 이차전지 산업의 업황은 내년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친환경 관련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면서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에는 유럽의 CO<sub>2</sub> 배출 규제 강화, 주요국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중저가 전기차 출시 등과 더불어 ESS 등 전기차 외 전방산업의 성장이 이차전지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미국 대선 이후 차기 행정부에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의무판매 등 친환경 관련 정책의 축소가 논의<sup>93)</sup>됨에 따라 이차전지 업황에 하방 압력이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전기차 보조금 재지급 및  
중국산 전기차 관세 강화

[표 8.6]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관련 정책

내년부터 중저가 모델 출시 예정 ESS 시장의 장기 성장세 지속 전망

[표 8.7] 주요 완성차업체의  
중저가 모델 출시

[그림 8.5] 글로벌 ESS 시장 규모 전망<sup>4)</sup>

국가명	세부내용
독일	전기차 신차 구매 시 대당 6천 유로 보조금 지급 논의(24.9월)
미국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강화(24.9월)
유럽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6~48%로 강화(24.10월)

기업명	모델명
테슬라	- Model Y Juniper(2025년) - Model2(2025년)
GM	- Silverado EV Max range, Entry level, Range Topping(2025년) - Chevrolet Bolt 재출시(2025년)
르노	- R4 E-Tech(2025년) - New Twingo E-Tech(2026년)

자료: 언론보도

주: 1) ( )내는 출시예정년도

자료: 각사 발표



주: 1) 24년 이후는 전망치

자료: Precedence Research

93) 트럼프는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대통령 당선 시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화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발언하였으며 (Bloomberg), 현재 트럼프 정권인수팀은 전기차 관련 IRA 중 하나인 전기자동차 구매 시 7,500달러의 소비자 세액 공제 혜택을 폐지 계획 중이다(Reuters).

## 참고문헌

성상훈, 김우섭(2024), “계륵 신세였던 ESS...美 신재생 훈풍 타고 효자로”, 한국경제, 5월 10일

안희수(2024), “LG에너지솔루션”, DB금융투자

Natter(2024), “Trump vows to end electric vehicle ‘mandate’ on day one”, Bloomberg, 7월 19일

Precedence Research(2024), “Energy Storage Systems Market Size to Worth USD 535.53 Bn By 2033”

Renshaw, Kirkham, Eckert(2024), “Trump’s transition team aims to kill Biden EV tax credit”, Reuters, 11월 15일

Sky Han et al.(2024), “China lithium price bottomed”, UBS